

우주 방랑 도시 Orphans of the Sky

로버트 하인라인 지음

아이디어회관 sf 직지프로젝트

차례

괴물이다!	3
과학자가 되다.	8
배는 무엇인가?	18
뮤탄트의 포로	22
주조종실	27
찬란한 어둠.	33
대우주	38
우주선을 구하라.	47
그래도 배는 움직인다.	53
비밀의 사자.	66
역습	71
멀고 먼 켄타우리로	83

출발.	87
야심	93
저것이 켄타우리다.	99
상식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104
당신이 선장.	113
반란이다!	120
의심	127
또 다른 방	133
우주 항행 일지	142
배반	149
최후의 순간.	157
휴의 결심.	165
멋진 식사를!	171

이것은 2119년, 유사 이래 처음으로 행해진 항성간 비행 - 프록시마 켄타우리 탐험대의 이야기다.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켄타우루스 자리의 주성인 알파 켄타우리로서 삼중 태양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거리는 4.25 광년—약 40조 4천억 km—으로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이다.

이 인류 최초의 대우주 여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우주선 뱅거드 호는 그 때까지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뱅거드 호는 지름이 수십km가 넘는 타이어 형으로서, 수천 명의 사람이 몇십, 몇백 년—아니, 거의 반영구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화학 공장, 합성 식품 공장,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여러 가지 공장, 각종 의료 시설을 갖춘 종합 병원, 여러 가지의 과학 연구소, 교육 기관, 도서관, 영화관, 체육관, 천문대, 관측소, 우주선 내 모든 설비의 동력원이 되는 에너지 전환로 등이 갖추어져 있다.

또 뱅거드 호는 자전하면서 인공 중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타이어의 축 부분으로 감에 따라서 인공 중력이 줄어들어 중심부는 완전한 무중력 상태가 되는 것이다.

뱅거드 호는 출발하고 나서부터 수십 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우주 비행을 계속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우주선 내에 반란이 일어났다.

아마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승무원 사이에 그 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한 탓이리라. 아뿔튼 그 처참한 사건으로 선장을 비롯해서 항해 장교와 기술 장교 등 승무원의 90%가 죽었다.

농장은 황폐해지고 공장은 파괴되어 식료품이 부족하게 되었다. 우주선 내의 통신망이 두절되고, 곳곳의 자동문은 닫힌 채 열리지 않고 엘리베이터도 멈췄다. 그리고 농장에 마구 자란 식물은 우주선 내의 여러 곳에서 무성한 정글을 이루었다.

원자로의 고장으로 방사능이 새어 나와 많은 사람이 원자병으로 죽었고,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이 20명 중 1명 꼴로 무시무시한 불구자 - 뮤탄트 - 가 되었다.

우주선을 조종하는 기술은 물론, 모든 과학과 기술을 잊어버려서 사람들은 기계나 과학을 비방하고 미신을 믿는 인간으로 변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도선관의 책이란 책은 모조리 에너지 전환로에 처넣어 불태워 버렸다.

2172년, 드디어 최후의 정상적인 남자가 죽음으로써 뱅거드 호는 지구와의 연락도 끊겨 버렸다.

그리고 뱅거드 호의 운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

- 대우주사 제 3 권에서 -

괴물이다 !

“조심해! 뮤탄트가 있어.”

갑자기 누군가 날카롭게 외쳤다. 휴 호일랜드는 몸을 얼른 숨겼다. 달걀만한 총알이 휴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 벽에 맞고 ‘짱!’ 하는 무서운 소리를 냈다. 만약 그 총알에 맞는다면 두개골이 산산조각나 버릴 것이다.

휴는 다음 행동으로 옮겼다. 발을 오므려 쇠벽을 힘껏 쳤다. 그의 몸은 가로누운 채 화살처럼 날고 있었다. 손에는 어느새 뽑았는지 예리한 칼이 쥐어져 있었다. 이 계단 - 중력이 없는 이 계단 - 근처에서만 가능한 전법이다.

그는 총알이 날아온 근처까지 가자마자 몸을 굽혀 바닥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재빨리 앞의 통로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벌써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곳으로 휴의 동료 두 사람이 두둥실 반쯤 뜬 채 다가왔다.

“벌써 없어졌어?”

앨런 마호니가 말했다.

“아, 해치에서 내려오는 걸 언뜻 봤어. 여자인 것 같았는데... 발이 4개인 것 같았어.”

모트 타일러가 말했다. 세 사람은 친구 사이인 것 같았다.

“벌써 잡혔을까?”

“누가 그런 놈을 잡고 싶어하겠니? 나라도 잡지 않겠다.”

앨런이 목을 움츠리며 이렇게 말했지만 휴는 달랐다.

“나 같으면 잡겠다. 만약 그 놈이 겨냥한 게 5cm 정확했다면 틀림없이 에너지 전환로에 맞았을 테니까.”

“그렇지만 이런 곳까지 오지 말았어야 했어. 만약 선장에게 들 키면 어떻게 되겠니?”

모트가 초조한 듯한 투로 말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통로와 계단이 온통 이상한 식물로 뒤덮여서 어쩐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아마 이곳도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탓이겠지... 이 곳의 식물도 뮤탄트, 즉 돌연 변이었다.

“모트, 그런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너는 아직 과학자가 된 것이 아니야. 우리 같은 젊은이에게는 가끔씩 이런 정도의 모험은 필요해. 별로 큰 죄가 아니라고. 과학자들도 대개 젊었을 때는 이 정도의 모험은 해 봤을 거야.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

모트 타일러는 뭐라고 대꾸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앨런 마호니가 휴를 향해 돌아섰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슬슬 여기를 나가야겠다.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온 것은 처음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좀 무서워. 몸이 뽕뽕 뜨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지 않고. 빨리 중력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휴는 아직도 칼을 손에 짝 친 채 뮤탄트가 사라진 해치

쪽으로 분한 듯이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드디어 앨런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앨런. 이제 슬슬 가자. 아래까지는 꽤 멀 거야.”

세 사람은 그 근처를 조심스레 둘러보면서 해치 쪽으로 되돌아왔다. 해치에는 쇠로 된 사다리가 놓여 있었지만 세 사람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7~8m나 되는 아래 계단으로 그냥 뛰어내렸다.

그러나 몸은 고속 도로 촬영된 영화를 보듯이 두둥실 공중에 떠서 천천히 떨어졌다. 그 계단 근처에도 이상한 식물이 우거져 있었다. 식물의 그늘에 드리워진 해치에서 세 사람은 또 아래 계단으로 뛰어내렸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어둑어둑한 신비스런 계단을 부지런히 내려왔다. 한 계단 내려올 적마다 세 사람이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바닥에 떨어질 때의 충격도 심해졌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중력이 커져 가는 까닭이었다.

마침내 앨런이 말을 꺼냈다.

“휴, 이젠 천천히 걷자. 아까 뛰어내릴 때는 다리가 아팠어.”

“좋아, 그렇게 하자.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이제 앞으로 얼마나 내려가야 하지? 계산해 봤니?”

그러자 모트가 곧 대답했다.

“앞으로 70계단만 내려가면 농장이 나올거야.”

앨런이 눈을 휘둥그레 떴다.

“어떻게 알았지?”

“갈 때 세어 두었어. 내려갈 때마다 하나씩 빼면 되잖아. 이 정도는 아무리 바보 같은 농사꾼이라도 알겠다.”

“뭐라고!”

앨런이 갑자기 허리띠의 칼자루에 손을 가져갔다.

“햇병아리 과학자라고 잘 대해 주려고 했더니 이제 용서 못 하겠다. 나의 칼솜씨를 보고 싶나?”

“좋아, 앨런.”

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마을 밖에서 결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말을 했다.

“더구나 모트 말대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꽤 몸이 무거워졌지? 자, 어서 서둘러서 돌아가자.”

그리고 나서 세 사람은 아무 말없이 서 있다가 다시 신나게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다. 중력은 점차로 커져 갔다. 그렇게 조금 가니 갑자기 굉장히 밝은 곳이 나왔다. 그리고 천장의 높이가 지금까지의 3배나 되는 계단이 나왔다. 공기가 축축해지면 따뜻해지고 눈에 익은 식물이 우거져 있었다.

“아무래도 끝난 것 같아.”

휴는 이렇게 말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이 농장은 본 기억이 없는데. 올라갈 때와는 다른 길로 내려온 것 같아.”

“저쪽에 농부가 있다. 길을 물어 보자.”

모트는 우거진 식물 사이로 두려운 듯이 이쪽을 살펴보고 있는 남자를 불렀다.

“어이, 동지! 마을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요?”

농부는 겁을 내면서 식물 사이에서 나와 묻는 말에 대답했다.

과학자가 되다.

그 뒤, 3~4km를 더 가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은 넓은 터널이 나왔다. 그것은 그들이 왔던 마을로 들어가는 터널이다. 터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짐을 운반하는 사람, 손수레를 미는 농부, 앞치마를 두른 부인, 그리고 4명의 건장한 젊은이가 메는 가마를 타고 가는 위대한 과학자가 있었다. 그 앞에는 꽤 늙은 몸집에 갑옷을 입은 호위병이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다.

터널을 나오니 마을이었다. 무사히 마을에 도착하자 갑자기 맥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마을 입구에서 세 사람은 헤어졌다. 앨런의 집은 농사를 짓고 모트의 아버지는 관청의 서기였다. 그리고 휴는 수도 수리상을 하고 있는 숙부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다. 휴는 죽 늘어서 있는 공동 주택으로 들어갔다. 숙부는 거실에서 파이프를 물고 있었다.

“아, 휴! 또 탐험을 한 모양이구나?”

숙부는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그래요, 아저씨.”

숙모가 저녁상을 휴 앞에 갖다 놓았다.

“멋진 식사를, 아주머니.”

“멋진 식사를, 휴.”

휴는 배가 몹시 고팠으므로 서둘러서 먹기 시작했다.

“어느 쪽을 탐험하고 왔니, 휴?”

“위요.”

“위라는 건 알고 있어. 어디까지 갔었지?”

“거의 중력이 없는 계단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뮤탄트와 마주쳐서 하마터면 머리가 깨질 뻔했어요.”

숙부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런 짓을 계속하다가가는 죽어 버릴지도 모른다. 휴, 일을 좀 열심히 하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니?”

“일은 할 거예요. 하지만 아저씨, 저는 좀더 많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애가 타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도 역시 어릴 적에는 그랬었다.”

숙부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자주 돌아다녔지. 중앙 통로를 빠져 나가 어디든지 갔었다. 길을 잃어서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고 생각하기도 했고 뮤탄트에게 쫓기다가 다쳐서 간신히 마을로 돌아오기도 했지. 이것 봐라. 이것이 그 때 다친 상처란다.”

숙부는 옷을 걷고 오래 된 흉터를 내보이며 어루만졌다. 그러나 휴는 그 흉터도 이제는 보기 싫어졌고, 그 ‘대모험’의 이야기도 듣기 싫었다. 더욱이 숙부의 모험은 사실은 대단한 것도 아니었다.

‘나는 좀 더 알고 싶다. 좀 더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 도대체 어째서 윗계단으로

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일까? 왜 신은 그 곳에 가면 안 된다고 정해 놓은 것일까?’

휴는 언제나 생각하던 것을 또 생각했다. 그러나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법’을 비판하거나 신이 정해 놓은 것들을 파고들거나 하는 짓은 금지되어 있다. 그런 짓을 하면 곧 ‘심문회’에 끌려가서 무서운 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너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다. 앞으로 할 일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니? 나의 수도 수리상 일을 이을 마음이 없다면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된다.”

“알고 있어요, 아저씨.”

숙부는 파이프를 털고 일어섰다.

“알겠다. 지금 나는 증인한테 가는 길인데, 너도 함께 가겠니? 그 증인은 너를 조수로 삼고 싶어한다. 너를 한 번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어때 가겠니?”

휴는 조금 생각한 뒤에 고개를 끄덕였다.

“가겠어요, 아저씨.”

휴는 식사를 급히 끝내고 아저씨를 따라 집을 나섰다. 증인은 광장 건너 반대쪽 공동 주택의 첫번째 집에 살고 있다. 증인이 하는 일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골치 아픈 일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우주선 안에선 대단히 존경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증인은 흰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인데, 나이가 무척 많아서 기력이 쇠약해지긴

했어도 지혜와 말씀씨만은 아직도 뛰어났다.

아저씨는 증인에게 수도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는 농부에게서 어떻게 돈을 받아 낼 수 있을까를 상담하러 간 것이다. 증인은 즉시 ‘성서’ 의 문구를 암송하더니 돈을 내지 않으면 물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대답했다. 숙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휴에게 ‘이제 증인과 이야기하거라’ 하고는 돌아가 버렸다. 증인은 휴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휴, 최근의 모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니?”

휴는 이번에 윗계단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했다. 증인은 묵묵히, 그러나 때때로 머리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다가 이윽고 말했다.

“너는 꽤 예리한 눈과 귀를 가지고 있구나, 휴. 내 밑에서 증인 수업을 받지 않겠니? 수도 수리상보다는 이것이 좋을 것 같은데.”

휴는 주저했다.

“하지만 증인님, 저는 그전에 좀 더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흞, 예를 들면 어떤 것이지?”

“예를 들어, 저 중력이 없는 곳의 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 말이에요.”

증인은 휴를 쳐다보며 흰 수염을 쓰다듬었다.

“그런 것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거다.”

휴는 바삭 다가앉았다.

“증인님은 저 위까지 올라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은 눈을 돌렸다.

“무슨 바보같은 소리냐! 나는 증인이다. ‘성서’의 문구를 전부 외는 데만도 몇십 년이나 걸렸어. 그런 어린애 같은 놀이 따위를 하고 있을 틈이 없었다.”

“그럼, 영원히 알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건 모두 성서 안에 쓰여 있어. 잘 들어 보거라.”

그렇게 말하고 증인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낭랑한 목소리로 성서 문구를 암송하기 시작했다. 휴도 물론 그 문구를 외서 알고 있다. 그러나 증인에게 반항할 수 없어서 무릎을 꿇은 채 듣고 있었다.

태초에 신이 있어

태초에 신은 어둠으로부터

‘계획’을 만들어 주셨다.

‘계획’에서 배는 생기지 않았다.

아름다운 방은 끝없이 계속되고

생명의 탱크는 끝없이 펼쳐 있고

통로는 배를 돌고

계단은 신이 계시는

몹시 높은 곳까지 계속되고

문은 저절로 열리고

인간은 모두 즐겁게 그 의무를 다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신은 결정해 주시고
여행은 목적지로 향해 가기도 한다.

그래도

이윽고 저주의 날이 오기도 하고
황금 시대는 끝나지 않는다.
반역자는 신을 거역하고
반역자는 선장을 상처내고
반역자는 과학자를 깨물고
반역자는 농부를, 여러 가지로 ‘배에 탄 오염 친구’ 를
혼란시키고
계획을 무산시키려 한다.

그래도

신의 가르침은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
가르침을 말하시고
과학자를 따라서
선장을 존경하시오
가르침은 금하고 있다.
금제를 어기면 안 된다.

신이 계시는
윗계단을 침범하면 안 된다.
계획을 진행하기 위함이니까.
여행을 완성하기 위함이니까.
가르치심을 등지는 것은
에너지 전환로에 넣어질 것이 분명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나 짐승 따위기 되어
뮤탄트 나라로 쫓겨 나서
영원히 지옥을 헤매게 된다.

증인은 감았던 눈을 뜨고 휴를 바라보았다.

“알겠니? 두 번 다시 허락을 받지 않고 탐험 같은 것을 하면 안 된다.”

휴는 일어서며 머리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사실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다.

‘만약 윗계단이 신이 있는 곳이라면, 왜 그 안에 뮤탄트 나라가 있는 걸까? 신이 우리들 편이라면 그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야. 또, 만약 뮤탄트가 신의 적이라면 신은 만능하니까 뮤탄트를 해치워 버려야 하지 않을까?’

그는 마음 속에 언제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증인은 물끄러미 휴를 바라보고 있다가, 휴가 입 속으로 투덜거리자 책상에

손을 뺀어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무언가 쓰더니 휴에게 건네 주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너의 마을의 과학자 넬슨에게 주어라.”

휴는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신을 의심하는 것을 증인이 알아차린 것일까? 이것은 나를 고발하는 편지가 아닐까?’

휴의 머리에 언뜻 그런 생각이 스쳤다. 만약 고발당한다면, 심문회에 불려가면 금지된 윗계단에 갔었던 것도 모두 탄로나 버린다. 그리고 유죄를 선고받으면, 그전부터 들어왔던 무서운 지하에서 길고 힘든 노동을 하든가, 그렇지 않고 좀 더 심한 죄라면 곧장 에 너지 전환로에 보내질 것이다. 그러나 증인의 말에 반항하는 것은 더욱 용서받지 못하는 큰 죄이다.

휴는 힘없이 그 방을 나왔다. 마을로 되돌아온 휴는 공동 주택의 제일 위에 있는 과학자 넬슨의 커다란 집으로 갔다. 넬슨은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훌륭한 사람이다. 휴는 아직 넬슨과 단둘이 만난 적이 없었다.

휴가 가슴을 죄며 문을 두드리자 하녀가 나왔다. 편지를 주고 한참 기다리고 있으니 들어오라고 했다. 몸이 마르고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넬슨은 큰 사무실 책상의 맞은편에서 물끄러미 그를 쳐다보았다.

“이리로 오게, 휴. 그 의자에 앉지.”

넬슨의 말투는 뜻밖에도 부드러웠다.

‘이렇게 다정한 것을 보니 고발당하지는 않은 모양이군.’

그는 조금 안심했다. 그러나 과학자의 다음 말은 한 번 더 휴를 떨리게 했다.

“휴 호일랜드, 너는 요즘 자주 탐험을 하는 것 같은데, 어제도 금지된 구역에 들어갔었지?”

“그, 그렇습니다.”

휴는 얼굴이 굳어지며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나 넬슨은 또 그를 놀라게 했다.

“아, 괜찮아. 건강하고 지혜로운 젊은이라면 아무리 금지해도 그 정도의 모험은 다 하니까. 나는 네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그런 젊은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휴는 어안이 빙빙해서 과학자를 다시 쳐다보았다.

“사실은 네가 태어났을 때, 너의 머리가 보통 아이보다 훨씬 커서 뮤탄트라는 진단이 내려졌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에너지 전환로에 넣어 버리자고 주장했었지.”

그것은 처음 듣는 말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말렸다. 왜냐 하면 네가 얼마 안 있어 훌륭한 과학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과학자라고요?”

휴는 또다시 크게 놀랐다. 넬슨은 고개를 끄덕였다.

“휴, 너 같은 젊은이에겐 농부나 평범한 직장인은 어울리지 않아. 증인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너에게 증인 교육을 시키려고 한 거야. 그러나 네가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나에게 보낸 것이다.”

휴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묵묵히 서 있었다. 과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래, 너 같은 젊은이는 지도자가 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로에 보내지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

과학자는 휴를 노려보았다.

“휴, 너는 오늘부터 과학자 후보생으로 내 밑에서 일해야 한다.”

배는 무엇인가?

그로부터 휴의 일과는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모험도 단념하고 모트나 앨런처럼 친구와 노는 것도 그만 두었다. 그는 넬슨이 읽는 책을 한쪽 귀퉁이에서 흘깃 넘겨다 보았다. 그것은 오랜 옛날부터 ‘배’에 전해져 오는 책으로서 성서처럼 오래 된 책이었다. 그 내용을 처음 보는 휴로서는 뭐가 뭔지 통 알 수가 없었다. 단어 자체도 어렵고 고어체며, 또 이상하게 간접적으로 표현해서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게다가 내용 중에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도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인력의 법칙’이라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물체는 모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잡아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하며, 인력은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만, 휴는 그것을 아무래도 알 수가 없었다. 자석과 쇠는 서로 잡아당긴다. 그러나 보통 물체와 물체는 쉽사리 잡아당기지 않는다. 게다가 만약 인력이라는 것이 어디에나 있는 것이라면 왜 윗계단에 올라가면 몸이 뜨는 것일까? 왜 저 위와 이 아래 사이에는 인력이 다른 것일까? 휴는 그것을 넬슨에게 물어 보았다. 그러자 넬슨은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옛날 책에는 모두 그런 식으로 쓰여 있다.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많지. 사실은 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랑의 법칙이다. 질량이 곧 사랑인 것이지. 결국 인간 끼리는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서로 끌어당기게 된다는 말이야. 그러나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거든. ‘인력의 법칙’이란 바로 이런 뜻이다. 이제 알겠니?”

휴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알쏭달쏭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어쩐지 더 정확한 해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과학자의 가르침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또, 옛날 책에는 ‘여행’이라는 말도 자주 나왔다. 휴는 과학자에게 그것이 어떤 뜻인지 물어 보았다.

“옛날 책에는 ‘배’를 타고 ‘여행’을 한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배는 우리들이 있는 이 세계가 아닌가요? 세계가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것도 역시 옛날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비유이다. 휴, 너도 말했듯이 배는 지금 우리들이 있는 세계이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 것도 없는 곳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지. 하지만 그것을 정신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렴.”

“정신적이라고 한다면?”

넬슨 과학자는 또 빙그레 웃었다.

“결국 우리들의 이 세계는 ‘신’의 ‘계획’에 의해 만들어져서 그

목적지, 곧 천국으로 가는 배이다. 휴, 성서에는 천국이 ‘켄타우리’라고 쓰여 있단다. 우리들은 ‘신’의 계시에 따라서 머지 않아 모두 ‘켄타우리’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도 역시 아리송한 대답이다. 그러나 휴는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하는 편이 새로운 것을 차례차례로 배워 나가는 데 좋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얼마 뒤에 휴는 시험에 합격하여 하급 과학자가 되었다. 하급 과학자의 주요 임무는 에너지 전환로의 조절과 연료 보충이었다. 그 일은 별로 어렵지 않았다. 마을의 여기저기에서 운반되어 오는 폐물을 정리하고, 그 물질에 맞게 열을 올리거나 내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전환로의 주임은 빌 에르츠라는 과학자였다. 휴는 그와도 곧 친해졌다. 단, 죽은 사람이나 사형수를 에너지 전환로에 집어넣는 것만은 아직까지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인간은 태어나서 일하고 먹고 자고 그리고 전환로에 들어가 ‘여행’을 끝마치는 것이다. 그런 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말 ‘여행’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일까? 하지만 휴는 어떤 다른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에너지 전환로와 이어지는 파이프 고장을 조사하기 위해 여럿이서 조금 위의 계단으로 올라갔다. 파이프가 고장난 곳은 곧 발견되어 수리를 시작했다. 수리를 하면서 휴는 또

옛날 책에서 읽었던 ‘지옥’ 이라든가 ‘우주’ 하는 신화를 아련히 떠올렸다.

도대체 우주라는 것은, 무한의 우주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우주에 떠 있는 지구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

‘정말 옛날 사람은 터무니없는 것만 생각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뒤쪽 벽에서 갑자기 수십 명의 뮤탄트가 나타났다. 다음 순간 슬롯 머신 소리가 나면서 총알이 휴의 명치에 명중했다. 그는 곧 의식을 잃었다. 눈 앞이 캄캄해지며 그대로 정신을 잃은 것이다.

뮤탄트의 포로

몸 하나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조-짐 그레고리는 자기끼리 바둑을 두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는 트럼프를 했었는데 오른쪽 머리인 조가 왼쪽 머리인 짐이 속임수를 썼다고 하며 싸움을 걸었다. 그래서 그것을 그만둬 버렸다.

바둑이라면 두 사람이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속임수를 쓸 염려는 없는 것이다.

그 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조-짐은 칼을 뽑아 금방이라도 던질 자세를 취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어떤 남자가 등을 돌리고 들어왔다.

이것은 조-짐의 방에 들어올 때의 습관이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를 불문하고 조-짐의 칼이 날아가게 된다.

들어온 사람은 120~130cm 밖에 안 되는 머리가 매우 작은 난장이였다. 그러나 가슴이 두텁고 팔이 굵어서 무서운 힘을 가졌으리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난장이는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어떤 남자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조-짐은 칼을 칼집에 넣었다.

“그 놈을 바닥에 내려놓고 문을 닫아.”

짐이 명령했다.

“이 놈은 뭐지?”

바닥에 눕혀진 남자는 아직 젊었고, 늘씬하게 뺨은 건장한 몸집을 가지고 있었다. 죽은 듯이 보였지만 아무데도 상처가 없고 피도 흘리지 않았다.

“나, 이 놈을 먹을테야. 그래도 되지?”

난장이가 말했다. 지능이 좀 모자라 보였는데, 반쯤 벌리고 있는 입에선 침이 계속 흘러나왔다.

“보브, 이 놈을 네가 죽였나?”

보브는 조그만 머리를 흔들며 끄덕였다.

“슬롯 머신을 여기에 쏘았어.”

그는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혀서 비스듬히 누워 있는 젊은이의 명치에 갖다 대었다.

“잘했어. 훌륭해.”

조-짐은 젊은이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 놈은 아직 살아 있어. 그래, 입을 열게 하자.”

조가 그를 정신차리게 했다. 그러자 젊은이는 ‘음...’ 하며 몸을 움직이고 눈을 떴다. 보브가 눈을 번뜩이며 자기 배를 어루만졌다.

“나는 배고파 죽겠어. 이 놈을 먹고 싶어.”

조-짐은 방구석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큰 돼지고기 덩어리를 꺼내 보브에게 던져 주었다.

“간다. 나.”

보브는 기쁜듯이 입맛을 다시고 고기를 씹어 먹으면서 나갔다.

조-짐은 포로를 발로 건드려 보았다.

“눈을 떠, 임마! 너는 어떤 놈이냐?”

젊은이는 몸을 떨며 두 손으로 머리를 거머쥐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뮤탄트의 포로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재빨리 몸을 일으키려 하면서 허리춤에 있는 칼에 손을 가져갔다. 그러나 칼은 없고 칼집만 매달려 있었다. 조-짐은 자기의 칼을 빼서 젊은이의 눈 앞에 들이대었다.

“얌전히 굴면 죽이지 않는다. 이름이 뭐냐?”

젊은이는 머리가 둘 달린 괴물을 노려보았다.

“안돼, 조. 이 놈은 우리들의 먹이로 하는 게 좋아.”

짐이 이렇게 말했으나 조는 머리를 저었다.

“그건 나중에 해도 돼. 나는 이 놈과 이야기를 하고 싶단 말이야. 너의 이름을 말해.”

“휴 호일랜드요.”

포로가 처음 입을 열었다.

“너의 마을은?”

“170계단 밑에 있는 농촌이오.”

“뮤탄트 나라에는 무엇하러 왔지? 우리들을 염탐하러 왔나?”

휴는 화가 울컥 치밀어 올라 입술을 깨물고 잠자코 있었다.

“이봐, 조, 어지간히 해둬. 이 놈은 단지 어리석은 백성일 뿐이야. 죽여 버리는 게 좋단니까.”

“아니야, 입을 열 때까지 가둬 두자.”

조는 그렇게 말하고 칼을 들이대며 휴를 방구석에 있는 작은 반침 안에 처넣었다. 문을 닫으니까 안은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휴 호일랜드는 주위의 벽에 손을 대어 보았다. 그러나 주위는 차가운 쇠벽으로 둘러싸였다.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저 괴물들이 나를 죽여서 먹어 치워 버리지는 않을까?’

도대체 알 수 없었다. 머리가 심하게 아팠다. 배가 고프고 목도 말랐다. 그러면서 점점 의식이 멀어져 갔다.

다시 문이 열렸을 때 휴는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었다. 그 때 누군가가 눈 앞에다 물이 들어 있는 컵을 내밀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손을 뻗어 그것을 잡으려고 하자 컵이 뒤로 쏙 물러났다.

“물을 마시고 싶나?”

머리가 돌 달린 뮤탄트가 말했다.

휴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을 주면 말을 할 텐가?”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려 했지만 목이 너무 말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컵이 앞으로 나왔다. 휴는 재빨리 컵에

달려들어 반이나 흘러면서 단숨에 마셨다.

“너무 급히 마시면 잘못하다간 죽어 버린다. 자, 말해 봐. 말하면 물과 먹을 것을 더 주겠다.”

휴는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뮤탄트의 포로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

‘그러나 언젠가는 도망쳐 버릴 테다. 그 때까지는 이 곳을 잘 살펴 두자. 그리고 다음에는 많은 동료들과 함께 와서 이 놈들을 모두 죽여 버리고 말테다.’

그는 마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 머리 둘 달린 뮤탄트는 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곧 알아차린 듯했다.

“좋아, 휴.”

조가 말했다.

“만약 네가 혼자 이 방에서 나가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너를 죽여도 좋다고 모두에게 말해 두겠다. 너는 세 계단도 못 내려가서 죽을 것이다. 알았나?”

짐이 이어서 덧붙였다.

“그러니까 군말 말고 우리들의 종노릇을 하면서 있는 거다. 알았지?”

주조종실

뮤탄트의 종으로서 휴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뜻밖에 조-짐은 휴에게 심하게 대하지 않았다. 게다가, 일도 별로 시키지 않았다. 보브와 함께 물을 떠올리고 음식물을 운반하는 것 이외에는 일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것이 있었다.

조-짐은 글을 읽고 쓸 줄도 알고 있었다. 뮤탄트는 모두 무서운 야만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휴에게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놀랄 만한 사실이었다. 게다가 조-짐, 특히 조는 책을 많이 읽어서 여러 가지를 알고 있었다. 단, 조-짐의 지식은 휴의 지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조-짐은 ‘배’ 안의 과학자들을 몹시 경멸하고 있었다.

“그 과학자 녀석들은 모두 바보들이야. 그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녀석들이야.”

토론을 좋아하는 조는 곧잘 이렇게 말했다. 휴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어째서죠? 우리들은 성서의 문구를 모두 외고 있고, 또 그 뜻도 알고 있어요. 과학자가 없다면 ‘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 것도 알 수 없어요.”

“흥, 그럴까? 그럼,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여행’에 대해서 알고 있나?”

“물론 알고말고요.”

“그럼, 어떤 의미인지 말해 봐.”

“‘여행’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무의미한 말입니다. 왜냐 하면 이 세계가 어디로 움직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을 가리켜 ‘여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켄타우리’ - 곧 신의 세계로 가게 되는 거죠.”

휴는 조금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러자 조-짐은 웃음을 터뜨렸다. 휴는 또 울컥했다. 비웃음을 받을 만큼 자신이 잘못 말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유도 없이 사람을 놀리며 웃는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야만인이다.’

휴는 마음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한참 있다가 웃음을 그치고 조가 말했다.

“너는 정말 그것을 믿고 있나? 너는 옛날 책을 읽은 모양인데, 그런데도 ‘여행’이라는 것이 정말 어딘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 적이 없단 말이지?”

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짐이 말을 이었다.

“‘배’라는 것은 커다란 교통 기관인데, 그것이 어딘가로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켄타우리라는 것은 바로 배의 목적지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나?”

휴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된다는 듯이,

“하지만 그런 건 불가능해요! 배는 아무데도 가지 않아요. 배 그 자체가 세계입니다. 물론 우리는 배 안을 여행하고 있지요. 그러나 배가 교통 기관이며 또 어딘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억지예요!”

조는 갑자기 진지한 태도가 되었다. 그 얼굴에는 조금 전까지의 장난기 어린 표정은 모두 없어졌다.

“그러나 휴, 만약 ‘배’ 보다 훨씬 크고 넓은 장소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나? 그리고, 우리들이 배 안을 걷는 것처럼 배가 그 안을 움직이고 있다면?”

휴는 머리를 저었다.

“어처구니가 없군요. 배보다 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잠깐, 그럼 너는 배의 바깥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바깥이라고요? 그런 것은 없어요. 배의 바닥은 제일 아래 갑판이며 그것 뿐이에요. 더 밑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제일 아래 갑판에 칼로 구멍을 냈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어디가 나올 것 같니?”

“갑판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능해요.”

조는 속이 타서 머리를 내저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멍을 뚫는다면 이라고 말했잖아! 잘 생각해봐.”

휴는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칼로 갑판을 뚫고 뚫어서 드디오 뚫어졌다면 어떻게 될까? 깊고 깊은 구멍이 뚫려서 그곳으로 거꾸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휴는 소름이 끼쳤다.

“이제 알겠나? 바로 그것이다. 휴. 이 배의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펼쳐져 있어.”

조가 말했다.

“그런 무서운 일이? 믿을 수 없어요.”

조가 벌떡 일어났다. 멍하니 있던 짐이 놀라서 조에게,

“뭐야? 어디에 가려는 거지?”

“휴를 무중력 구역에 데리고 가려고 그래.”

“무엇 때문에?”

“이 녀석의 우둔한 머리에 조금 정상적인 생각을 넣어 주려고 말이야.”

“쓸데없는 이야기야. 조. 그걸 보면 이 놈은 기절해 버릴 게 뻔해.”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 나는 이 놈을 시험해 보고 싶어.”

“어이쿠! 또 호기심이 발동했군.”

짐은 그렇게 말했으나 더 이상은 반대하려고 하지 않았다. 조-짐은 방 밖에서 자고 있는 보보를 일으켜 앞세우고 뮤탄트 나라의

안을 걷기 시작했다.

그것은 휴에게 있어 최초의 경험이었다. 뮤탄트 나라는 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거기에는 아래 계단처럼 풀도 나무도 돋아나 있지 않고, 단지 녹이 슬고 깨진 아주 오래 된 설비나 도구들이 텅굴고 있었다. 그리고 이따금 뒤틀리고 끊어진 칼집이나 깨진 보일러 따위에서 괴상한 모양을 한 뮤탄트가 한 손에 칼을 들고 튀어나왔다. 그러나 뮤탄트들은 조-짐의 모습을 보자마자 공손하게 머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길을 비켜 주었다.

조-짐은 뮤탄트들에게 너그러운 지도자인 것 같았다. 뮤탄트들은 휴를 보고는 무서운 표정을 지었지만 절대로 손을 대지는 않았다. 조-짐이 그렇게 명령해 두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나라를 쳐들어왔다가는 도저히 당해 내질 못하겠구나. 뮤탄트는 조-짐을 존경하고 그의 명령에는 절대로 복종하고 있다. 더구나 조-짐은 매우 머리가 좋다. 아마 우리가 지고 말 거야.’

휴는 조-짐의 뒤를 따라 걸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일행은 사다리를 타고 점점 위로 올라갔다. 갑판을 하나 오를 때마다 중력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드디어 중력이 거의 없는 계단까지 왔다. 무심코 발을 강하게 디디면 그 순간 몸이 동실 떠올라 줌처럼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었다. 휴는 지금까지 탐험을 여러 번 했지만 이렇게 중

력이 없는 곳까지는 와 본 적이 없었다. 어쩐지 몸이 불안정해서 기분이 나빴다. 더욱 위로 올라가자 이제는 발이 거의 바닥에 닿지 않게 되었다. 벽이라든지 난간, 파이프 같은 것들을 붙잡고 몸을 그냥 앞으로 밀어 내기만 해도 몸이 붕 떠올랐다.

조-짐 일행은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가볍게, 글자 그대로 나는 듯이 앞으로 나아갔다. 보브는 들떠서 마구 떠들어 대며 기둥이나 천장 사이를 마치 이상한 물고기처럼 자유자재로 헤엄치고 다녔다.

잠시 뒤에 일행은 놀랍도록 넓은 장소에 다다랐다. 갑판은 비스듬하게 경사져 있었는데 맨 끝 쪽은 천장과 맞닿아 있었다.

‘거대한 원통 모양의 방이로군. 아무래도 여기가 끝인가 보다.’

휴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느 짐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방 주위에 널려 있는 거대한 원통형의 기둥 쪽으로 헤엄쳐 갔다. 그곳으로 한참 가니 드디어 통로가 나왔다. 통로의 끝에는 단단한 해치 모양의 문이 달려 있었다. 조-짐은 그 문에 붙어 있는 단추를 눌렀다.

문은 금속이 스치는 듯한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문의 안쪽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그 앞에 또 하나의 튼튼한 문이 달려 있었다. 그 문에 쓰여 있는 글자를 본 순간 휴는 등이 오싹해서 그만 제자리에서 꼼짝못하고 말았다. 문에는 ‘구조종실’이라는 뜻말이 빛나고 있었다.

찬란한 어둠.

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다. 그는 ‘주조종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성서의 문구 안에도 있는데 - 매우 신성한 곳이며 절대로 인간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몇 군데나 쓰여 있었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신’의 노여움을 사서 시커멓게 타 죽는다. - 성서의 문구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지금 나는 그 무서운 주조종실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조-짐이 돌아보았다.

“이리 와. 휴. 뭘 하고 있나?”

“하지만”

“뭐가 하지만이야. 어서 따라와!”

“하지만 여기는 주조종실입니다. 이런 곳에 들어가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신의 노여움을 사서...”

“바보 같으니!”

짐이 큰소리로 호통을 쳤다.

“자, 조용히 따라와.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끌고 갈 테다.”

조-짐은 문에 달려 있는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휴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강한 호기심이 꿈틀꿈

틀 머리를 쳐들기 시작했다. 그는 숨을 죽이며 이를 악물고 조-짐의 머리 사이로 방 안을 넘겨다 보았다. 그 곳은 길이가 10m도 넘는 듯한 넓은 방이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빛이 구석구석까지 밝게 비추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는 거대한 원통형의 기계가 우람하게 놓여 있었다. 그 기계에는 무수히 많은 작은 단추와 스위치, 다이얼 등이 있었고, 또 수백, 수천 개의 신호 등이 반짝거리며 모여 있었다. 마치 그 기계 자체가 하나의 큰 금속 생물인 것 같았다.

조-짐은 곧장 그 기계 앞으로 걸어갔다. 기계 앞에는 그 때까지 휴가 본 적이 없는 이상한 의자가 세 개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의자의 팔걸이에도 많은 종류의 다이얼과 단추가 즐지어 있어서 앉은 사람이 손을 뺏기만 하면 그 어느 것에도 닿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앞에는 몇백 개나 되는 자동 계기류가 펼쳐져 있었다. 휴는 눈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계기류는 모두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았다. 계기류의 바늘은 한쪽 옆으로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거기 앉아!”

조-짐이 오른쪽 의자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휴는 놀라서 뒷걸음질쳤다.

“다, 당치도 않아요! 싫어요!”

“뭐라고?”

“저... 여기는 ‘신’의 방이에요. 저것은 신의 의자고요. 이런

곳에 앉으면 벌을 받게 됩니다.”

“바보 같은 소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어서 앉아.”

조가 무서운 얼굴로 말했다. 휴가 곧 앉지 않으면 때릴 기세였다. 휴는 할 수 없이 시키는 대로 머뭇거리면서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손을 계기류에서 멀리 놓았다. 잘못해서 손을 댔다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의자에 앉아 보니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마치 커다란 동물의 팔 안에 포근히 안긴 것처럼 편안했다. 게다가 의자는 주문해서 만들거나 한 것처럼 그의 몸에 꼭 맞았다.

조-짐도 가운데 의자에 앉았다. 그 의자 맨 앞의 계기반 위에 ‘선장 착석’이라는 새빨간 글씨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자기 좌석 앞을 보니 ‘2등 우주 항해사 착석’이라는 빨간 글씨가 빛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다. 그러나 조금 뒤에 조-짐이 앉은 자리가 선장용 좌석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자기가 앉아 있는 곳은 2등 우주 항해사의 자리라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2등 우주 항해사라는 말은 못 들어 본 것 같은데? 하급 과학자 같은 건가?’

휴는 이런 것을 아련히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는 먼 옛날 ‘선장’이나 ‘2등 우주 항해사’가 무엇인가를 했던 곳이다. 그것도 꽤 중요한 것을.

조-짐 쪽을 흘끔 쳐다보니까 그가 오른손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자 눈앞의 스크린에 ‘가속도 - 제로’ 라는 문자가 나오고, 계속해서 ‘주엔진 - 입력 제로’ 라는 글씨가 나오더니 조금 뒤에 꺼져 버렸다. 휴는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은 마술과 같이 신기해 보였다.

“놀라지 마라. 이 방의 빛을 모두 꺼야겠다.”

조-짐이 말했다.

“빛을?”

휴는 깜짝 놀라서 외쳤다. 빛이 전혀 없는 어둠이라는 것을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두 세 차례 어두컴컴한 골목에 잘못 들어가서 나오지 못한 적은 있었다. 그 때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었다.

“설마, 그런?”

그러자 조-짐이 함께 빙긋 웃었다.

“그것도 네가 끄는 거다.”

조가 말했다.

“왼쪽 앞을 봐. 거기에 작고 하얗게 빛이 나는 것이 있을 거다.”

휴는 조가 말한 곳을 보았다. 의자의 팔걸이 앞에 여덟 개의 작은 빛이 늘어서 있었다. 그 안쪽에서 여러 가지 빛이 비치고 있었고, 그것이 플라스틱 같은 표면까지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을 손으로 가려 봐. 이 조종실의 빛이 꺼질테니까.”

“하지만...”

“해 보라니까!”

짐이 큰소리로 외쳤다.

휴는 머뭇거렸다. 그러나 두려움과 동시에 호기심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는 작은 빛 쪽으로 슬슬 손을 뻗었다. 손 끝을 8개의 빛 중 하나 위에 놓자 지금까지 은색으로 찬란했던 등근 천장의 8분의 1이 희미한 납색으로 변했다. 휴가 손을 점점 뻗쳐 가니까 천장의 빛은 차례로 어두워지고, 드디어 계기반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없는 어둠이 되어 버렸다.

휴는 흠짓하고 방을 둘러보았다. 계기반의 빛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조-짐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아, 좋아. 이제부터 너에게 ‘밖’ 을 보여 주겠다.”

“저것 봐! 저것이 별이다.”

조-짐이 각각 말했다. 그리고 손을 뻗치자 의자 앞에 붙어 있는 무슨 장치가 조금 흔들렸다.

“뚜...”

갑자기 휴의 눈 앞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세계가 펼쳐졌다!

대우주

그것은 검은 빌로드 위에 박힌 수많은 보석 같았다. 그러나 보통 보석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살아서 타고 있으며, 또 성스럽게 빛나고 있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빛이었다. 그 검고 끝없이 넓은 어둠은 휴의 마음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그 어둠 속으로 한없이 굴러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다.

“아아!”

휴는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강하게 의자의 팔걸이를 거머쥐고 몸이 흔들리지 않게 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휴는 배 안의 인생 말고도 멋진 것이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았다. 휴의 마음은 마구 흔들리고 어지러웠다. 그는 한참 동안 완전히 자기 자신도 잊어버린 채 그 광경만을 바라보았다.

“왜 그러나?”

조-짐이 물었지만 휴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 때, 조-짐이 자기 자리에 있는 장치로 주조종실 안을 밝게 했다. 천장의 안쪽이 밝아지기 시작하자 별빛은 옅어지면서 차츰 사라져 갔다.

휴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가슴이 옥신옥신거리고 심장이 마치 몇백 m나 달려온 뒤처럼 마구 뛰었다.

“왜 그러냐고 물었다, 휴. 갑자기 병어리가 되었나?”

짐이 또 물었다. 그러나 휴는 아직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별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에 그는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휴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저것이 ‘밖’ 입니까?”

“그렇다.”

“그리고 저 빛나고 있는 것... 저것은 무엇이죠?”

“저건 별이다.”

“별이 뭔데요?”

“자기 스스로 무서운 열을 가지고 타고 있는 거대한 덩어리이다. 그렇게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놀랄 정도로 커. 이 배같은 것과는 전혀 비교도 안 될 정도이지.”

“설마 그런?”

“사실이다. 저 작은 빛은 사실 몇천km, 몇만km나 떨어져 있는 거야.”

“뭐라고요!”

휴는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배의 밖으로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이 ‘밖’ 이라고 하지 않았나. 저것이 이 배의 밖에 펼쳐져 있는 우주이다. 곧 세계인 것이다!”

휴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런 바보에게 그런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리야. 내가 말했잖아, 시간 낭비라고.”

짐이 조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그러지 마라, 짐. 기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날아보라고 하는 건 무리야. 우리들도 이것을 이해하는 데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 이것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마련이야.”

“그건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들과 이 녀석과는 살아온 방법이 달라.”

휴는 어렴풋이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머리 속이 계속 빙빙 돌았다.

“조, 가르쳐 주세요. 아까 우리들이 저 별이라는 것을 보고 있었을 때 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와 짐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조가 뽀내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된 거지, 짐? 이 녀석은 이해가 빠른 것같지 않아?”

짐은 어깨를 움츠렸다. 그러나 그 얼굴에도 뜻밖이라는 듯 가벼운 경련이 일어났다.

“네 말대로야, 휴. 우리들은 - 이 배는 언제나 우주 공간을 날고 있어.”

“하지만 우주 공간을 날아서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것은 몰라.”

조-짐은 짧게 대답했다.

“아마 저 별 중의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을 거다. 켄타우리라는 별로.”

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켄타우리로의 우주 여행. 멀고 먼, 아득히 먼 여행.”

휴는 입 속으로 그런 말을 중얼거렸다.

그 날은 그 정도에서 끝내고 일행은 방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그 뒤에 휴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조-짐이 가지고 있는 책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읽어 나갔다. 지금까지 읽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도 모두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휴는 읽고 또 읽었다. 잠자는 시간과 먹는 시간도 아까운 것 같았다.

조-짐은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일도 거의 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휴가 아무리 책을 읽어도 나무라지도 않을 뿐 아니라, 모르는 것을 물어 보면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고, 또 휴가 물어 보는 것을 재미있어 했다. 실제로 조-짐과의 대화를 통해 휴는 책으로는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배웠다. 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처음으로 알았다. 배 - 우주선은 수백 년 전 인간이 태어난 ‘지구’라는 행성에서 만들어져 쏘아 올린 것이다. 처음에 우주선에 탄 사람들 - 곧 휴들의 조상 - 은 모두 뛰어난 과학자이며 기술자들이었다.

그리고 모두들 맡은 일을 열심히 해나가면서 멀고 먼 우주 여행을 시작했다. 모두가 서로 ‘같은 배를 탄 동지’ 라고 부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우주선은 켄타우리를 향해 날아갔다.

처음에 우주 여행은 매우 순조로웠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다. 그것이 무슨 일인지 휴로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일 이후 우주선 안은 뒤죽박죽이 되고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며 자기 동료 이외의 사람은 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버렸다. 이렇게 해서 모든 과학과 기술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정말로 이것은 휴에게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였다. 그렇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었다. 특히, 지구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 되지 않았다. 휴에게 지구는 그저 끝없이 크다는 것으로만 느껴졌다.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특히 바다라는 것은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도 짐작이 가지 않았다.

아니, 그보다 더욱 이상한 것은 지구 위에서는 인간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조? 그렇게 되면 모두 우주로 떨어져 나갈 게 아닙니까?”

휴는 조에게 물었다.

“아니, 그렇지 않다. 왜냐 하면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지.”

중력이라는 말은 물론 휴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그것을 사랑의 법칙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조-짐은 마구 웃어댔다. 그리고는 겨우 웃음을 그치고 설명해 주었다.

“중력이라는 것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으로서 인력이라고도 한다. 물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중력이 있다. 지구라는 것도 대단히 큰 물질 덩어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표면에 있는 것은 모두 지구 중력에 의해 지구 표면에 매달려 있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결코 떨어지지 않지.”

“음, 그렇다면 이 우주선 안에도 그 인력의 법칙이 작용합니까?”

“물론이지.”

“그렇다면 왜 아래 계단에 가면 몸이 무거워지고, 윗계단에 가면 가벼워집니까?”

“아, 그것은 조금 다른 경우야. 여기에 있는 것은 중력은 중력이지만 인공 중력이야. 이것은 원심력이야.”

휴는 원심력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나 원심력이 우주선 안에 응용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처음 알았다.

“돌에 끈을 매서 휘두르면 돌은 멀리 날아가려고 하지. 그것이 원심력이다. 이 우주선은 원반형으로 되어 있으며, 또 빙빙 돌고 있다. 그러니까 원반 안에 원심력이 생겨서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날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바깥에 벽이 있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고,

그 대신 그것이 무게로 느껴지는 것이다.”

조는 천천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그러므로 아래 계단 - 즉, 우주선을 형성하고 있는 원반의 끝부분 - 으로 갈수록 무거운 느낌이 들고, 반대로 윗계단 - 곧 원반의 중심부 - 으로 다가감에 따라 가벼워져서 결국에는 무게가 없어지는 것이지. 구조중심은 정확히 그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무게가 없는 것이다. 만약 우주선의 회전을 정지시키면 원심력이 없어지고, 따라서 무게도 없어지며, 사람들이 모두 뒹뒹 떠오르게 된다. 어때, 알겠나?”

휴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짐은 휴를 몇 번이나 구조중심에 데리고 가서 조종 장치의 사용법과 우주 항행에 필요한 계기를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휴는 조-짐도 그다지 자세한 것까지는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곧 알았다. 그래서 휴는 조종법에 관한 책을 찾아 읽어 곧 조-짐보다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

휴가 제일 놀란 것은 우주선의 장치가 거의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오랜 옛날, 이 우주선을 설계했던 사람들은 우주 여행이 매우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동안에 거의 인간이 손을 대지 않아도 되도록 모든 장치를 자동식으로 해놓은 것이다. 또, 그런 장치류가 고장나거나 낡으면 자동적으로 부품이 교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휴는 옛날 과학자의 치밀한 준비성에

대해서 크게 감탄했다.

어느 날 휴는 또 조-짐과 함께 주조종실에 가보았다. 전과 같이 조종석에 앉아서 ‘가속’ 이라고 쓰여 있는 단추 위에 손을 갖다 대었다. 그러자 스크린에 ‘주엔진 기관사 없음’ 이라는 글씨가 나타났다.

“저것은 어떤 뜻이지요?”

휴는 조-짐에게 물어 보았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조가 대답하며 목을 움츠렸다.

“이 맞은편에 있는 ‘주엔진실’ 의 기관사석에서 해 보니까, ‘선장 없음’ 이라는 글씨가 나오던데 어떻게 된 걸까?”

“그럼...”

휴는 곰곰히 생각해 본 끝에 이렇게 말했다.

“만약, 기관사석과 선장석 양쪽에서 동시에 ‘가속’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는데.”

조-짐은 관심이 없다는 듯이 말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휴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갔다. 아마 ‘배’ 의 주엔진에 연료가 주입되고 엔진이 돌기 시작하겠지.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휴는 그 이상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아니, 그것보다도 무엇인가가 두려워서 알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아마 그 때는 굉장한 소리가 나면서 이 거대한 우주선은 어둡고 어두운 대우주 속을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날기 시작하겠지.

‘한번 해 보고 싶은데.’

휴는 문득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우주선을 구하라.

어느 날, 휴는 또 조-짐을 졸라서 주조종실에 갔다. 그 곳에서 빛을 모두 끄고 멋진 대우주의 광경에 흠뻑 도취되어 보았다.

“조-짐...”

“왜?”

“정말 멋있어요.”

“뭐가?”

“저것 말이에요. 저 별, 저 대우주 말입니다.”

휴는 팔을 들어서 둥근 천장 가득히 펼쳐져 있는 대우주의 장대한 광경을 가리켰다. 조-짐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마치 내가 저 거대한 우주의 일부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짐이 말했다.

그 말을 듣고 휴는 마음을 굳혔다. 그것은 아까부터 말하려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당신들은 왜 그 일을 해 보려고 하지 않지요, 조-짐?”

“그 일이라니, 무슨 일 말인가?”

조-짐은 놀란 표정으로 휴를 쳐다보았다.

“주엔진을 가속시켜서 빨리 저 별까지 날아가는 것 말이에요!”

조-짐은 어안이 병병해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았다. 휴는 얼른 앞으로 나아갔다.

“저 우주의 어딘가에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안의 어딘가에 내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우주선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람들도 그럴 생각이었어던 것 같아요. 그 뜻에 따라서 다른 별에 내리는 것이 우리들, 이 우주선에 탄 사람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짐이 큰 소리를 내며 웃기 시작했다. 조는 표정이 굳어져 머리를 흔들었다.

“그 일이라는 게 고작 그거야?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생각 하지도 마, 휴. 그런 것은 모두 지나가 버린 옛날의 꿈이야. 이제는 모두 끝나 버렸단 말이야.”

“뭐라고요? 왜 그게 꿈입니까? 어째서 끝나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조는 도중에 말이 막혔다.

“그것은 너무나도 큰 일이기 때문이야.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지. 그런 일을 하려면 잘 훈련을 받은 승무원들이 많이 필요해.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도 없어. 모두 보브같이 모자라는 정신 이상자들뿐이거든.”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휴는 반대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마 열 명 정도일 겁니다. 이 우주선에는 사람이 직접 조종해야 되는 것은 몇 가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 명만 있어도 우리들 손으로 이 우주선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조는 머리를 저었다.

“그것만은 안 돼, 휴. 첫째로, 우리들은 이 장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도 몰라. 아니, 거의 모른다고 하는 편이 좋아.”

조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처럼 천천히 말했다.

“두 번째로, 만약 우리 손으로 조종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조종할 수 없어. 왜냐 하면 우리들은 이 우주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향해 날아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이런 상태에서 우주선을 조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아요.”

휴는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힘을 주었다.

“계기만 정확하게 읽을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마 컴퓨터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알아 내면 돼요. 조-짐, 그렇게만 되면 가능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짐은 휴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대답했다.

“글쎄, 이야기를 듣고 보니 될 것도 같은데.”

“우리 한번 해 봐요, 조-짐!”

“그렇지만 사람이 부족해. 이곳의 뮤탄트들은 안돼.”

휴는 조-짐에게 바싹 다가앉으며 말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아래 계단에는 나처럼 젊은 과학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여기에 데리고 와서 당신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돼.”

짐이 경멸하듯이 말했다.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나도 이렇게 설득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허락만 해 준다면 당장이라도 아래 계단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어요. 그렇게 하면 당신이 그들을 훈련시켜서…”

“우리들을 잘 봐, 휴.”

휴는 머리를 갸웃거리며 조-짐을 바라보았다.

“무엇으로 보이지?”

“무엇으로 보이냐고요? 조-짐으로 보이는데요.”

“아니야, 네가 보고 있는 것은 뮤탄트다.”

조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우리들은 뮤탄트야. 알겠나, 휴? 너희들 과학자는 뮤탄트와 함께 일하고 싶어하지 않아.”

휴는 머리를 크게 저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는 농부와는 달라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협력합니다. 내가 그 좋은 예예요. 나는 저 대우주를 본 순간, 당신들이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휴는 열심히 설명했다.

“문제는 그 과학자들이 뮤탄트 나라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은 당신들의 힘으로 가능하겠지요?”

“물론 그것은 할 수 있지.”

짐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러나 정말 그 과학자들이 우리의 일을 도와 줄까?”

“틀림없이 도와 줄 겁니다. 그 문제는 내게 맡기십시오.”

“그럼 누가 그 과학자들을 부르러 가지? 우리들이 갔다가는 아무도 상대히 주지 않을 거야. 상대는 커녕 모두 덤벼들어서 우리를 에너지 전환로에 던져 버릴 것이 뻔해.”

“아, 물론 내가 가야죠. 처음에는 여기에서 도망쳐 나온 것처럼 행동하다가 기회를 봐서 그들을 설득해 보겠어요.”

조-짐은 물끄러미 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너, 설마 그들을 데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 쳐들어올 작정은 아니겠지?”

휴는 머리를 휘저으며 눈을 크게 뜨고 조-짐을 바라보았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를 믿어 주세요.”

조-짐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조금 뒤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휴”

“예”

“우리들은 결심했다.”

조가 말했다.

“너를 아래 계단으로 보내겠다.”

그래도 배는 움직인다.

보브가 길을 안내해 주었다. 도중의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뮤탄트들이 이쪽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보브와 함께 가기 때문에 아무런 위험도 없었다. 이윽고 보브와 휴는 휴가 살던 마을 근처의 계단인 무인 지대까지 내려왔다.

“고마워, 보브. 덕분에 무사히 왔어. 멋진 식사를!”

휴가 섭섭해 하며 말하자 난장이는 빙긋이 웃고는 내려왔던 사다리를 타고 재빨리 올라갔다. 그의 모습은 곧 보이지 않게 되었다.

휴는 허리의 칼에 손을 대어 보았다. 포로가 되었을 때 빼앗긴 이래 참으로 오랫동안 만져 보는 칼의 감촉은 매우 좋았다. 휴는 걷기 시작했다. 거기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보조 에너지 전환로 방이 있다. 그는 거기에 가서 빌 에르츠 주임을 만날 작정이었다. 200m 정도 걸어가니까 전에 본 기억이 있는 듯한 전환로의 방문이 보였다. 그 옆에 보초가 한 사람 서 있었다. 보초는 의심스러운 얼굴로 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주임을 만나고 싶소.”

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다.

“당신은 누구요?”

“휴 호일랜드요.”

“무슨 용건입니까?”

“그건 주임을 만나서 이야기할 거니까 우선 들여보내 주시오. 에르츠 주임은 있겠지요?”

“에르츠 주임?”

보초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주임은 없소.”

“그렇리가 없는데. 나는 빌 에르츠 밑에서 일한 적이 있었대고요.”

보초는 머리를 가웃거렸다.

“빌 에르츠라면... 아, 기관장 말이군. 당신은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지요? 도대체 어디에 갔다 온 거요?”

보초는 점점 더 의심스러운 듯한 눈으로 훑어보았다.

“아, 그렇군. 내가 깜빡 실수를 했소.”

휴는 난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끼면서 자신이 없는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보초는 묘한 표정을 지으며 에르츠는 사무실에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휴가 안으로 들어가자 에르츠는 책상에서 얼굴을 들었다.

“오, 돌아왔구나, 휴! 이거 정말 놀랄 일인걸! 우리들은 자네가 ‘여행’ 하러 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명단에서 지워 버렸는데.”

“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겠지. 상당히 고생을 한 모양이군. 벌써 흰 머리카락이 난 걸 보니.”

휴는 깜짝 놀랐다. 희 머리카락이 났다는 것을 자신은 전혀 몰랐었기 때문이었다. 뮤탄트 나라에는 거울 같은 것이 없었으니까.

그러고 보니 그는 자신이 얼마나 긴 시간을 뮤탄트 나라에서 보냈는지 모르고 있었다. 휴는 고장난 파이프를 수리하는 도중에 뮤탄트에게 공격을 받아서 정신을 잃은 것, 정신을 차려보니 뮤탄트 나라에 옮겨져 있었던 것, 그 뒤 죽 노예로 일해 온 것등을 간단히 말했다.

빌 에르츠는 머리를 끄덕이면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었다. 그리고 이윽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이거 좀 곤란하게 되었는데. 자네가 이렇게 돌아왔으니 어떻게 하지? 전에 자네가 일하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곤란하고 모트 타일러가 자네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휴는 모트 타일러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어디서나 잘난 체하면서 조그만 일에도 규칙을 들고 나오는 그 모트. 휴는 그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니, 걱정 말게. 자네의 계급에 맞는 일을 찾아볼 테니까.”

빌 에르츠는 공책을 꺼내어 훌훌 넘겼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기관장님?”

“그건 나의 일이 아닐세. 자네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평의회에서 결정할 거야. 정말 이걸 전례없는 일이니까. 우리들은 지금까지 뮤탄트를 상대로 싸워오는 동안 많은 과학자를 잃었다. 살아 돌아온 건 자네가 처음이야.”

“아니, 먼저 기관장님에게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뮤탄트 나라에 가서 놀랄 만한 것을 많이 보고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 당신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이걸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장 기관장님에게 온 겁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나는 …”

빌의 얼굴에 갑자기 긴장의 빛이 돌기 시작했다.

“어서 시작하게.”

빌 에르츠는 몸을 바짝 앞으로 내밀었다.

“자네는 뮤탄트 나라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어. 그렇다면, 그 놈들 나라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겠지. 자, 어서 말해 보게나.”

휴는 입술을 활았다.

“뮤탄트 나라는, 기관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달라요. 뮤탄트 나라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들은 뮤탄트에 대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지?”

“들어 보세요.”

휴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배가 사실은 대우주를 날고 있는 우주선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다. 그리고 주조종실에서 보았던 그 황홀한 대우주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휴는 빌의 표정을 살피면서 이야기해 나갔다. 그러나 빌은 거의 표정이 없었다. 단지 눈살을 찌푸리고 손가락 끝으로 책상을 툭툭 두드리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빨리 우리들의 조상이 시작했던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뮤탄트들과의 무익한 싸움을 그만두고 그들과 협력을 해야 합니다.”

휴는 온 힘을 다해 열심히 말했다.

“나는 뮤탄트 나라의 통치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그만두고 함께 일을 해 보자고 약속했어요. 내가 주임님, 아니 기관장님에게 제일 먼저 온 것은 당신이라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젊은 과학자들이 당신의 말이라면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빌 기관장님, 도와 주십시오. 지금 이 배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휴는 이야기를 끝내고 에르츠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에르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책상 위만 바라보고 있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야, 휴. 이렇게 중요한 일을 지금 당장 나도 결정할 수는 없네. 생각해 보겠네.”

“물론 그렇지요. 나도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믿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을 주조종실까지 데리고 가서 저 대우주의 모습을 직접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틀림없이 믿게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전에 뮤탄트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해 버릴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안전하게 주조종실까지 데려갈 수 있도록 뮤탄트의 통치자와 약속을 하고 왔어요. 나와 함께 행동하기만 하면 당신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빌 에르츠의 무표정한 얼굴에 무엇인가가 언뜻 나타났지만 그게 뭔지 휴는 알 수 없었다.

“아뭏든 오늘 하루 생각할 여유를 주게, 휴. 내일 아침까지 잘 생각해 보겠네. 내가 대답할 때까지 이 일은 절대로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돼. 함부로 이야기했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네.”

“그렇게 하지요.”

휴의 다짐을 받고 나자, 겨우 빌의 얼굴색이 좋아졌다.

“그런데 자네 무척 배가 고프고 피곤할텐데. 내 사무실 안에

있는 방을 하나 준비해 줄 테니까 식사를 하고 자는 게 좋겠네.”

“예,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푹 쉬게나.”

휴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직원이 와서 휴를 어떤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그 때서야 비로소 그는 자신이 무척 피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식사를 끝내니 졸음이 쏟아져 왔다. 그는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곧 잠들어 버렸다.

얼마나 잤을까. 굉장히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휴는 하품을 크게 하고 일어났다.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재빨리 허리띠를 쳐다보았다. 거기에는 칼집만이 있었다. 그는 방문의 손잡이를 돌려 보았다.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그는 갇혀 버린 것이었다.

‘큰 일났다. ! 내가 방심을 했구나.’

그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미 앞질러진 물이었다. 그 방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 아무래도 도망갈 방법이 없는 것 같았다.

‘빌 에르츠가 평의회에 나를 보고한 게 틀림없어. 아마 평의회에서는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고 있겠지.’

휴는 우울한 기분으로 생각했다.

평의회의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을지는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그들은 배의 규정에 대한 커다란 반역이라고 하겠지. 평의회는 망설이지 않고 여행 - 곧 에너지 전환로로 가는 형을 선고할

것이다.

꽤 시간이 지난 뒤 문 밖에서 소리가 나며 자물쇠가 열렸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몸집의 남자 두 명이 휴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 모두 허리띠에 차고 있는 칼을 짝 잡고 있었다.

“나와.”

하고 한 사람이 딱딱한 말투로 말했다. 사물실에는 다른 두 명의 남자가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하면 내리치겠다는 태도였다.

‘모든 것이 끝났구나.’

휴는 마음 밑바닥에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기색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고 일부러 느긋한 태도로 통로를 걸어갔다. 두 사람의 감시를 받으며 들어간 방에는 빌 에르츠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척 엄숙했다.

“에르츠 기관장님, 대단히 엄중한 경계로군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휴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태도로 말했다.

“자네는 이제부터 선장실로 갈 걸세. 평의회 의원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이건 약속과 다르잖아요. 에르츠 기관장님. 먼저 우리끼리 의논한 다음에 젊은 과학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겠다고 당신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자네는 이제부터 선장과 평의회 의원들 앞에서 이단죄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빌은 호위병들에게 눈짓을 했다. 두 호위병이 양쪽에서 휴의 팔을 잡고 천천히 통로를 걸어갔다.

선장실에는 뚱뚱하게 살이 찐 나이 많은 선장과 수많은 평의회 의원, 그리고 모트 타일러가 기다리고 있었다. 휴가 들어가자 모트가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가 서기관 일을 맡아보고 있는 것 같았다.

“선장님, 이 사람은 전에 하급 과학자였던 휴 호일랜드입니다. 그는 뮤탄트 나라에 갔다가 무척 위험하고도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규칙을 깨뜨리도록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과 반역죄로 심문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모트가 거드름을 피우면서 거침없이 말했다. 선장은 둥글고 커다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휴를 노려보았다.

“이 젊은이가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려고 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 남자는 규칙을 깨뜨리고 선장의 권위를 훼손시키려고 했습니다.”

모트는 계속 지껄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휴는 큰소리로 대들었다.

“선장님, 나는 배에 대한 진실을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배에 대한 옛날의 가르침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까지 진실을 진실로서 대하지 않았습니니다. 때문에 나는 그 진실을 모두에게 알려서 옛날의 가르침을 보다 정확하게 전하려는 것뿐입니다.”

선장을 눈살을 찌푸리면서 입술을 깨물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군. 너는 이단죄로 고발당했다. 그런데 아직도 옛날의 가르침을 믿고 있는 건가? 확실하게 말해!”

빌 에르츠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다.

“휴 호일랜드는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선장님, 그가 말한 터무니없는 이야기 - 배가 대우주를 여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그 밖에도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증거?”

“예, 주임 과학자인 넬슨에게서 들은 것입니다만, 휴는 태어날 때 머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비정상아로서 이미 에너지 전화로에 던져졌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넬슨이 감싸 준 덕에 살아났지만 역시 머리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뮤탄트 나라에 가서 혼이 나는 바람에 정신이 완전히 이상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휴는 정신 없이 두 손을 휘두르며 회쳤지만, 곧 양쪽에 있던 호

위병에게 팔을 단단히 붙잡히고 말았다. 그래도 그는 외쳤다.

“배는 정말로 움직이고 있어요. 선장님. 당신들도 주조종실에 가서 저 장대한 대우주의 모습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조종 장치를 보게 되면 믿을 겁니다. 우리들의 조상은 대우주의 여행자이며 모험가였던 겁니다!”

“선장님! 이건 무척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는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주조종실에 가까이 가는 것을 규칙에서 절대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거리낌없이 그런 말을 입에 담는 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는 거기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모트 타일러가 큰소리로 외쳤다.

“나는 빌 에르츠 기관장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미치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모트?”

선장이 튀어나온 배를 흔들면서 모트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뮤탄트 나라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칙을 깨뜨렸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는 동지를 배반하고 우리들을 뮤탄트의 먹이로 만들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오...!”

평의원들의 입에서 두려운 신음 소리가 새어 나왔다. 그들은 악마라도 보는 듯한 눈으로 휴를 바라보았다.

“저 녀석 말대로 뮤탄트 나라에 발을 들여놓아 보세요. 곧 우리들은 뮤탄트들에게 잡혀서 그들의 먹이가 되어 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놈은 배신자입니다!”

“알았다. 너는 휴에게 어떤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

선장이 지긋한 눈길로 쳐다보며 물었다.

“물론 에너지 전환로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트 타일러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선장은 다른 평의원들을 바라보았다.

“당신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길밖에 없습니다.”

모두 한 마디씩 말했다. 선장은 마지막으로 빌 에르츠를 쳐다보았다.

“당신의 의견은?”

빌은 조금 망설이며 휴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곧 어깨를 움츠리며 말했다.

“나도 같은 의견입니다. 선장님.”

“좋다. 그럼 판결을 내리겠다. 휴 호일랜드는 내일 전환로에 넣어진다. 이것으로 끝이다.”

선장이 무거운 몸을 들어 올리듯이 천천히 일어섰다.

“기다려, 기다려 줘요.”

휴는 소리쳤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진실을 아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진실에서 눈을 돌리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에너지 전환로에 처넣어서 입을 막으려고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배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의 비통한 외침도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는 발버둥치고 외쳐 댔지만 4~5명의 호위병들에게 끌려서 어떤 선실에 갇혀 버리고 말았다.

비밀의 사자.

선실에 갇힌 휴는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자신의 예상만으로 곧바로 빌 에르츠와 의논하는 게 아니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너무 믿은 것이다. 조금 기다려서 친해지고 난 뒤에 조심스럽게 마음을 떠보았어야 했다.

‘정말 바보였어. 되돌리지 못할 일을 저질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물쇠 열리는 소리가 나서 휴는 펄쩍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옛 스승인 넬슨이었다. 넬슨은 그전보다도 훨씬 나이를 먹었는데도 몸은 더 좋아진 것 같았다. 그러나 역시 휴에게는 친절한 과학자였다.

“무엇인가 내가 해 줄 것은 없겠니, 휴? 식사는 어때?”

“대단히 좋습니다. 별로 불편한 것은 없어요.”

휴는 거짓말을 했다.

“뭐 필요한 것은 없니?”

“아, 넬슨 과학자님, 면회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까요?”

“글쎄, 허락되지 않는 것 같기는 하지만 내가 한 번 말해 보겠다. 그 대신 너는…”

하고 넬슨 과학자는 물끄러미 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 이단 사상을 말하지 않겠다고 나에게 맹세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과학자님, 맹세하겠습니다.”

“좋아, 그런데 누구를 만나고 싶지?”

휴는 아까부터 몇 번이나 생각했던 것을 또 머리 속에서 되풀이해 보았다. 자신의 마음을 전해 줄 인물을. 그것은 결국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앨런 마호니 밖에 없었다.

“앨런 마호니요.”

하고 휴는 대답했다.

넬슨 과학자는 머리를 갸웃거렸다.

“허어, 왜 그를 만나려고 하지?”

“별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어려서부터 무척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좀 만나고 싶은 것뿐이에요.”

과학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곧 연락해 주겠다.”

넬슨 과학자가 돌아가고 나서 잠시 뒤 앨런 마호니가 들어왔다. 앨런은 반가운 기색이었지만 휴가 에너지 전환로에 가는 선고를 받은 것에 심한 충격을 받고 있었다.

“아아, 앨런. 어서와, 별 일 없이 잘 지냈지?”

“물론, 너도 잘 있었니? 넬슨이 연락을 해서 뛰어왔어.”

“고마와, 앨런. 요즈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구나!”

하고 휴가 말하자 앨런은 초조한 듯이 손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 그건 그렇고, 이렇게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여유가 없는 것 같아, 휴.”

앨런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니? 말해봐, 휴.”

휴는 어두운 얼굴로 머리를 저었다.

“그건 말할 수 없어, 앨런. 넬슨과 약속을 했거든.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말이야.”

“그런 약속이 무슨 소용 있어!”

앨런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너는 내일 사형당할지도 모르잖아! 대체 누가 너를 이런 지경에까지 몰아넣었지?”

“특별히 누구라고 할 것은 없어. 평의회나 선장도 내가 돌아온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앨런은 갑자기 눈을 번뜩였다.

“모트 타일러, 그 놈이 수작을 부린 거지, 휴?”

휴는 깜짝 놀라서 앨런을 쳐다보았다.

“무슨 뜻이지, 앨런?”

“네가 돌아오면 자기 일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야. 모트는 네가 없어지자 곧 너의 후임자가 되었거든. 게다가, 너와 가장 친했던 여자 친구에게 접근해서 결국 결혼해 버렸어. 그러니까 네가 돌아

온 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트 타일러야. 그 놈은 원래부터 심보가 사납고 교활한 녀석이었으니까 자신의 위치와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짓이라도 할 녀석이지. 어때, 휴, 그 놈이 충동질한 것이지?”

휴는 마음 속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리고 보니까 생각이 미치는 것이 있었다.

아마 모트는 빌 에르츠에게서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자인 자신을 제거해 버리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빌 에르츠나 평의원들의 머리 속에 휴가 위험한 반역자라는 생각을 심어 주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 그게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하자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 올랐다. ‘음흉한 녀석 같으니라고! 너의 그 교활한 음모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거대한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을 줄 아느냐!’ 그는 마음 속으로 외쳤다. 그 마음을 알아차린 듯 앨런이 말했다.

“어이, 휴, 너는 여기에서 처형당할 때만 기다리고 있을 작정은 아니겠지? 타일러 같은 비겁한 녀석의 음모에 당하고만 있자는 것은 아니겠지?”

“하지만, 여기에서 나갈 방법이 없어.”

“아니야, 있어!”

앨런이 소리쳤다.

“그건 잘 몰라. 하지만 도와 줄 사람들을 모아서 무기를 손에

넣고 여기를 습격하면 돼. 뭐 그다지 힘센 사람은 없지만, 너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몇몇 친구가 나설 거야.”

휴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건 안돼, 앨런. 그런 행동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나뿐만 아니라 너와 나머지 친구들도 모두 전환로에 가게 될 뿐이야.”

“하지만 그냥 여기에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 뭔가를 해야 돼.”

“그건 알고 있어.”

휴는 앨런 마호니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했다.

“앨런, 나를 위해서 어떤 위험한 일을 할 수 있겠니?”

“그런 걸 말이라고 하니!”

앨런은 화를 내듯이 말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야. 잘못하면 죽게 될지도 몰라. 그래도 해 주겠니?”

“물론이지.”

휴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좋아, 그럼 부탁을 하나 하지.”

그는 앨런의 귀에 입을 갖다 대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윗계단에 가서 보브라는 난장이 뮤탄트를 찾는 거야. 보브를 만나면...”

앨런은 아무도 모르게 마을을 빠져 나와 꽤 떨어진 곳까지 가서 윗계단으로 가는 사다리를 올라가기 시작했다.

오직 혼자서 곳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뮤탄트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앨런으로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모험이었다. 사실 그에게는 휴에게서 부탁받은 일을 달성할 자신도 없었다. 게다가 뮤탄트와 싸워서 이길 자신은 더욱 없었다.

그러나 그는 휴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앨런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휴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마음 속으로 다짐했다. 앨런은 이윽고 휴가 가르쳐 준 장소인 듯한 방에까지 갔다. 그러나 어느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잘못 찾아왔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의 육감에 무엇인가가 와닿았다. 앨런 칼자루를 쥐고 그쪽으로 돌아보았다. 그 순간 ‘휙’ 하는 소리를 내며 총알이 날아왔다. 총알은 앨런의 명치에 맞았다.

“보브! 보브! 휴가...”

이렇게 말하며 앨런은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푹 쓰러졌다. 보브가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고 기절해 있는 앨런의 몸을 어깨에 메고 윗계단으로 올라갔다. 보브가 간 곳은 조-짐의 방이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나서 앨런을 둘러멘 채 뒷걸음질로 들어갔다.

“새로운 고기를 가져왔어.”

보브가 그렇게 말하자 짐이 힐끔 그것을 쳐다보고는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네 것이니까 가져가.”

그러나 보브는 그냥 선 채로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다.

“이 놈이 나의 이름을 불렀어. 휴가 어떻다고 하는 것 같았어.”

책을 읽고 있던 조가 머리를 들었다.

“그래! 아마 휴가 보내서 온 사람인 모양이다. 눈을 뜨게 해, 보브”

보브는 거친 행동으로 앨런을 두드려 깨웠다. 앨런은 눈을 뜨고 -앞에 머리가 둘 달린 괴물이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공포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곧 휴가 한 말을 생각해 냈다.

“당신이 조-짐입니까?”

조가 머리를 끄덕였다.

“너는 누구지? 휴는 어떻게 됐나?”

앨런은 간단하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짐이 조를 돌아보았다.

“조, 역시 네가 말한 대로야. 휴는 실패한 거야. 바보같은 녀석.”

“잠깐만요. 당신들이 휴를 도우러 가지 않을 건가요? 휴를 저대로 내버려 둘 작정입니까?”

앨런이 불평하듯이 말했다.

“왜 우리들이 그 녀석을 도와 주어야 하는 거지?”

조가 앨런을 돌아보며 물었다.

“휴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당신들뿐이에요. 휴에게 단 하나뿐인 의지의 빛줄은 당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온 것이 아닙니까?”

짐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을 가로 막았다.

“그래? 그럼, 우리들이 휴를 도와 주겠다고 나섰다고 하자. 하지만 대체 어떻게 도와 주지?”

“그, 그것은 물론 구조대를 조직해서 아래로 내려가 휴가 갇혀 있는 곳을 습격해서 데려오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네 친구를 돕기 위해서 그런 무모한 싸움을 하고, 또 사람을 죽여야 한지?”

짐이 울화가 치민다는 듯이 말했다.

“휴는 당신들의 친구였잖아요!”

“아니다. 그 놈은 우리들의 포로였다.”

“하지만 휴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할 중대한 일이 있다고요. 우리들의 조상이 시작한 일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죽어서는 안 된다고…”

앨런은 온 힘을 기울여서 이야기했다.

조-짐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낮은 소리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앨런은 잠자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조-짐의 이야기는 굉장히 빠르고, 더구나 사투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짐이 조를 설득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미로 한번 해 보자는 건가?”

하고 조가 신경질을 내듯이 말하자 짐이,

“그래, 바둑을 두는 것보다는 재미있잖아.”

“바보 같은 소리! 나는 벌써 죽고 싶지는 않아. 바둑을 두는 게 좋아.”

“조, 너는 나이를 많이 먹었어.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무슨 소리야? 너는 나와 나이가 같잖아!”

“아, 몸은 그래. 그러나 머리 속에 든 것은 달라. 나의 머리 속에는 새로운 생각으로 가득차 있지만 너의 머리에는 무엇인가를 직접 해 보려는 용기가 없어.”

“제기랄, 알았어! 좋아,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중에 나를 원망하지는 마.”

마침내 조가 항복했다. 조-짐은 몸을 일켜서 보브를 불렀다. 보브는 개처럼 달려왔다.

“스코티와 룡암, 피그를 불러와. 밑으로 갈 거야.”

보브가 바깥으로 나가자 조-짐은 서류함을 열고 칼을 꺼냈다.

휴는 갑자기 감옥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전환로에 데려갈 사람들이 온 걸까?’

그는 순간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소동이 너무 심한 것 같았다.

‘어쩌면...’

휴는 몸을 벌떡 일으키고 바짝 귀를 기울였다. 그 때, 문이 힘껏 열리고 앨런의 모습이 보였다. 앨런은 휴에게 칼을 두 개 내밀었다.

“빨리 나와!”

“고마와, 앨런!”

휴가 칼을 허리띠에 끼우고 밖으로 나오자 또 칼 두 개를 앨런이 건네 주었다. 저쪽 통로에서 조-짐이 다가왔다.

그는 마왕같은 모습으로 통로에 딱 버티고 서서, 마치 자기 방에서 칼 던지는 연습을 하고 있을 때처럼 냉정하게 적을 향해서 칼을 던지고 있었다. 그 칼에 맞아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벌써 5~6명이나 되었다. 조-짐 옆에는 보브가 있었다. 그는 성능이 좋은 슬롯 머신에 총알을 채우고 차례로 날려 보냈다. 그 밖에도 세 사람이 있었다. 스코티와 롱암과 피그였다. 스코티는 땅딸막하고, 롱암은 팔이 길고, 피그는 큰 귀를 가지고 있다. 모두 각각 몇 명씩의 적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다.

“이쪽이다! 모두 빨리 와!”

앨런이 소리치며 오른쪽 통로로 달리기 시작했다. 조-짐도 곧 뒤따라갔다. 그 순간, 통로에서 적 한명이 달려와서 칼을 던지려고 하는 것을 휴가 발견했다. 적은 발에 칼이 꽂혀서 통로에 넘어졌다. 짐은 돌아서서 휴를 쳐다보았다.

“꽤 할 줄 아는군, 휴.”

“고마와요, 조-짐.”

“인사는 앨런에게 해.”

모두들 통로를 달려나갔다.

“이제 곧 중앙 통로로 나간다. 앞의 계단으로 올라가!”

앨런이 말했다. 말이 끝나자마자 보브가 계단을 뛰어올라갔다. 바로 그 때 코 앞에서 갑자기 커다란 문짝이 큰 소리를 내며 쓰러지면서 뒤에서 쫓아오는 적의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적의 작전에 걸려 든 것이다. 독안에 든 쥐였다. 지금 돌아온 통로의 모퉁이에서 적 한 명이 얼굴을 내밀었다. 그 순간 룡암의 슬롯 머신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총알을 내뿜었다. 그러나 총알은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바로 옆의 철판에 맞았다. 적은 곧 얼굴을 집어넣었다.

“어떻게 된 거지?”

앨런이 말했다. 보브와 피그가 힘을 합해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헛일이었다. 쇠문은 꿈쩍도 안 했다. 휴는 통로의 모퉁이를 보았다. 그 곳밖에 나갈 곳이 없었다.

“룡암, 저 등을 맞출 수 있어?”

그는 통로의 모퉁이 위에 있는 형광등을 가리키며 말했다. 거기까지는 꽤 거리가 멀었다. 게다가 여기는 뮤탄트 나라보다 인공 중력이 훨씬 크다.

“해 보자.”

롱암이 슬롯 머신으로 형광등을 겨냥했다. 곧 이어 푹하는 소리가 났다. 다음 순간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통로가 깜깜해졌다. 명중한 것이었다.

“지금이다. 뛰어! 모퉁이까지 가서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곧장 달려가!”

휴는 외쳤다. 모두 일제히 달리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뭔가가 날아와서 휴의 어깨를 스쳤다. 칼이었다. 어깨죽지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지만 그것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주위에서는 온통 요란한 발자국 소리만 울렸다. 오른쪽으로 돌아서 30~40m쯤 달려가니까 갑자기 밝은 곳이 나왔다. 거기에는 농부가 12~13명 있었지만, 휴 일행의 모습을 보고는 모두 도망갔다. 휴는 뒤돌아보았다. 바로 뒤에 조-짐과 앨런이, 그리고 조금 뒤에 보브와 롱암, 스코티가 보였다.

“피그는?”

그렇게 말했을 때 피그가 통로에서 뛰어나왔다. 그리고 뒤를 향해 칼을 던질 자세를 취했다. 그의 눈 앞에 어떤 남자가 나타났다. 모트 타일러였다. 피그가 그를 향해 칼을 던지려고 했다.

“잠깐! 그 놈은 내가 맡겠다!”

앨런이 피그를 향해 소리치고 나서 칼을 뽑아 모트 앞으로 나섰다. 모트도 자세를 가다듬었다.

“이 나쁜놈! 나와 대결하자! 이리 와!”

두 사람은 칼을 거머쥐고 상대를 노려보았다. 그러다가 모트가 자세를 낮추면서 먼저 칼을 내밀었다. 앨런은 몸을 핵 돌려서 피했다. 모트가 앨런에게 주먹을 나렸으나 앨런은 아슬아슬하게 피하면서 발로 모트를 걷어찼다. 두 사람은 서로 엉켜 바닥에서 뒹굴었다. 요란한 소리가 진동했다. 이윽고 앨런이 일어서며 피묻은 칼을 바지에 문질렀다. 모트는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가자. 이제 좀 시원하군.”

일행은 차례로 앞에 있는 계단을 올라갔다. 룡암과 피그가 앞에 서고, 스코티와 보브가 따라오며 뒤를 살폈다. 겨우 조금 안전한 곳에 왔다고 생각했을 때였다. 갑자기 머리 위에서 수십 자루의 칼이 번뜩였다. 적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룡암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칼을 들어서 가까스로 가로막았다. 곧이어 무서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칼이 어지럽게 맞부딪치며 불뚱이 튀었다. 두세 명이 차례로 쓰러지자 적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쪽은 룡암이 팔에 부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조-짐이 봉대를 감아 주었다. 피그가 재빨리 마루에 떨어져 있는 칼을 주워 모았다.

그 때, 넓적다리를 칼에 맞고 쓰러져 있던 적 한 명이 벽을 잡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빌 에르츠였다.

피그가 칼을 던지려 했으나 휴가 말했다. 그리고 보브에게 명령했다.

“명치를 겨냥해서 기절시켜.”

보브는 시키는 대로 빌 에르츠의 명치에 총알을 명중시켰다. 빌은 몸을 두 번 뒤척이더니 곧 바닥에 쓰러졌다.

“잘했어. 보브, 그 놈을 메고 와.”

휴는 계단을 올라가서 모두 모여 있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보브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외쳤다.

“좋아, 모두 가자 자기 주위에 신경을 써!”

조-짐은 묘한 얼굴이 되었다. 어느새 휴가 지휘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도 짐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휴가 지휘하는 모습이 어울리는 것 같았고, 또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서부터 열 계단은 거의 공격다운 공격에 부딪히지 않고 올라갔다. 또 스무 계단을 올라가서 휴는 멈추라고 명령했다. 부상자는 룡암뿐이었다. 보브는 얼굴을 조금 다치고 휴는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조-짐이 휴의 상처를 치료해 주려고 했지만 그가 거절했다.

“이제 피는 멈췄어요. 게다가 난 이제부터 갈 곳이 있어요.”

조가 놀란 얼굴을 했다.

“도대체 어딜 가려는 거지?”

“당신들은 돌아가세요. 나는 앨런과 빌 에르츠를 데리고 무중력 지역으로 올라갈 거예요. 주조종실 말이에요.”

“그 곳에 가서 뭘 하려는 거지?”

“두 사람에게 보여 줄 거예요. 저 대우주의 모습을.”

“그런 일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오, 지금이어야 해요!”

휴는 단호하게 말했다.

“두 사람에게 그것을 한시라도 빨리 보여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 우주선 본디의 목적을 달성하겠어요!”

휴의 결심에 조-짐도 어쩔 수가 없었다.

“알았다. 그럼 함께 가자.”

일행은 또 계단을 올라갔다. 올라감에 따라 중력이 줄어들자 앨런이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주조종실 앞에까지 와서는 주저하면서 꿈무늬를 뺐다. 휴는 앨런의 등을 밀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재빨리 주조종석 쪽으로 뛰어가서 조명을 켰다. 그러자 둥근 천장에 멧진 대우주의 웅장한 광경이 펼쳐졌다.

“오!”

앨런이 신음 소리를 냈다.

“저건. 저건!”

“저것이 너에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대우주야. 우리들은 지금 저 대우주 안을 날고 있는 거야.”

“무서워. 현기증이 나. 떨어질 것만 같아.”

앨런은 온몸을 떨면서 눈을 감았다. 휴가 그의 어깨를 흔들면서 소리쳤다.

“눈을 떠! 괜찮아. 떨어지지 않아. 눈을 뜨고 잘 보라고.”

조-짐이 바닥에 누워서 꼼작도 하지 않는 빌 에르츠의 창백한 얼굴로 눈을 돌리면서 휴에게 말했다.

“왜 이 놈을 데리고 왔지?”

“대우주를 보여 주려고요.”

“보여 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찌겠다는 건가?”

“이 사람은 과학자들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보면 우리들을 믿을 겁니다.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믿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들을 도와 줄 겁니다. 아마 아래 계단으로 내려가서 다른 과학자들을 설득시켜서 이리로 데려올 거예요.”

조-짐은 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란 놈은...”

조가 말을 시작하며 짐에게 눈짓을 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똑똑한 것 같다.”

라고 짐이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휴는 더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대우주의 파도 같은 별들을, 그 암흑의 공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멀고 먼 켄타우리로

한참 있다가 일행은 조-짐의 방에 모였다. 모두 몹시 지쳐서 맥빠진 얼굴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윽고 조가 먼저 말을 꺼냈다.

“네가 하는 말은 알겠다, 휴. 너는 빌 에르츠를 데리고 왔다. 그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려는 거지?”

“아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우주선의 본디의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는 겁니다. 이 우주선 안의 모든 과학자에게 배가 우주안을 날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적이 우리들을 배 안의 규칙에 따르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방어 태세를 철저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쪽의 부대를 모아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봐, 휴. 잘 들어!”

조가 말했다.

“지금까지는 네가 말하는 대로 따라왔지만, 설마 우리들이 정말로 너의 그 바보 같은 계획을 도와 주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물론 당신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보 같은 놈! 이제 그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다. 짐, 휴를 내쫓자.”

조가 이렇게 말했지만 짐은 머리를 저었다.

“좀 기다려, 조. 휴의 말을 한번 끝까지 들어 보자.”

“이봐, 짐! 여태까지는 휴의 말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다가, 요즈음은 그 놈의 편을 열심히 들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히 말해 두겠는데, 나는 그런 바보 같은 일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싶진 않단 말이야.”

“나도 그래.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휴의 말로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상대방이 우리들을 공격하려 올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라고.”

“그런 걸 어떻게 알았지?”

“빌 에르츠에게서 들었어요.”

휴가 조를 대신해서 대답했다.

“그는 평의회가 지금까지 전혀 생각지 못했던 큰 부대를 편성해서 이 곳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부대의 수는 몇백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대로 있다가는 아무리 당신들이 힘이 세다 하더라도 당하고 말거라는 거예요.”

조는 빌 에르츠를 쳐다보았다. 에르츠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평의회는 벌써 오래 전부터 젊은 과학자들에게 슬롯 머신과 칼의 사용법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곳을 공격하기 위한 훈련인 것이지요.”

그제서야 조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도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꼈던 것이다.

“어떻습니까, 나의 계획에 찬성해 주시겠습니까?”

휴는 조에게 말했다.

“하는 수 없지.”

“모두들 어떻게 생각하지?”

휴는 앨런과 에르츠를 바라보았다.

“나는 네가 말하는 대로 하겠어. 나는 농민이고 배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몰라. 그러나 저 우주를 본 이상, 아래의 바보 같은 규칙에 따라서 생활하고 싶지는 않아. 그 오래 된 규칙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이 배가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다면 나는 너의 말대로 하겠다, 휴.”

“고마와. 빌 에르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포로다.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없다.”

그 순간 칼 하나가 빌 에르츠 앞에 던져졌다. 조-짐이 던져 준 것이다.

에르츠가 놀라서 그를 쳐다보니, 조-짐은 집어넣으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당신은 포로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휴가 물끄러미 그의 눈을 쳐다보며 말했다. 빌 에르츠는 칼을 쥐고 잠깐 무슨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이윽고 칼을 칼집에 넣고 휴를 향해 손을 뻗었다.

“자네 말대로 하겠네, 휴 호일랜드!”

“좋아요!”

보브가 옆에서 괴상한 소리를 냈다.

“맹세하자!”

휴가 칼을 뽑아서 천장을 향해 힘차게 치켜 올리면서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칼을 뽑았다. 휴 호일랜드와 앨런 마호니, 빌 에르츠, 그리고 조-짐과 보브까지 다섯 개의 칼이 한 곳에 모여서 번쩍번쩍 빛을 냈다. 그것은 한 자루의 거대한 칼끝처럼 보였다.

“이 우주선 안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자!”

휴가 외쳤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자!”

일제히 외쳤다.

“이 우주선을 조종하여 조상의 뜻을 따라 목적지인 별로 나아가자!”

“조상의 뜻을 따라 별로 나아가자!”

“멀고 먼 켄타우리로!”

“멀고 먼 켄타우리로!”

출발.

휴의 작전은 신중했다.

“먼저, 빌 에르츠, 당신은 아래로 내려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대로 지내세요. 그리고 아래의 상황을 살펴서 그것을 수시로 이곳에 알려 주십시오. 그러기 위한 전령을 중간 계단 곳곳에 배치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쪽 편이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씩 유인해서 이 위로 올려 보내 주십시오. 그들에게 저 우주를 보여 주겠습니다. 그러다가 적당한 때가 오면 한꺼번에 아래로 쳐들어가서 점령하는 겁니다.”

에르츠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윽고 아래로 갈 시간이 왔다. 휴가 에르츠를 부르러 가 보니 그는 조-짐에게서 빌린 책 한 권을 열심히 읽고 있었다. 그는 휴를 보자 감동한 듯한 얼굴을 했다.

“이 ‘삼총사’ 라는 책은 정말 재미있는데, 휴. 자네도 읽어 보았나?”

“읽고말고요. 나도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지구라는 것은 정말 멋진 곳이야. 정말 책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까?”

휴는 목을 움츠렸다.

“그건 나도 몰라요. 조-짐도 모르고요. 왜냐 하면, 이 우주선에는

지구에 대해서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

에르츠는 책장을 훌훌 넘기면서,

“그건 그렇다 치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휴. 자네는 이 책 안에 쓰여 있는 ‘하우스’ 라는 것이 뭔지 알고 있나?”

“하우스? 아아, 집 말이지요? 그건 선실처럼 인간이 사는 곳일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선실 위에 올라갈 수 있지?”

휴는 눈을 크게 떴다.

“그건 무슨 뜻이죠?”

“이 책에는 주인공이 어디를 갈 때마다 하우스 위로 올라가서 달려간다는 대목이 많이 나와.”

“좀 보여 주게.”

뒤에 와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조가 빌 에르츠의 손에서 책을 빼앗아 들고 읽었다. 그리고 말했다.

“바보, 이걸 ‘하우스’ 가 아니잖아. ‘호스’ 야. 집이 아니고 말이란 말이다.”

그러나 휴와 에르츠는 멍한 얼굴로 조-짐의 눈만 바라보았다.

“말이 뭐죠?”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 조. 두 사람 다 말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들도 사진으로 밖에 본 적이 없지만 말이야.”

“말이란 것은 동물이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큰 돼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야윈 소 같은 동물이지.”

조가 설명했다.

“지구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타고 다녔지.”

“하지만 그다지 실용적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고 에르츠가 말했다.

“그렇지만 말이나 돼지에게 어떻게 가고 싶은 곳을 가르쳐 주죠? 나 같으면 타자마자 떨어져 버릴 것 같은데.”

“그래, 그것이 제일 어려운 거지. 말을 타기 위해서는 대단한 훈련이 필요할 거야.”

“그보다는 직접 달리든가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연습이라도 하는 편이 낫겠어요.”

에르츠가 그렇게 말했다. 조-짐은 어깨를 으쓱했다. 지구를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지구의 생활에 대한 것을 알게 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걸리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 때, 휴가 옆에서 입을 열었다.

“자, 이제 슬슬 가는 것이 좋겠어요. 기관장님.”

“아아, 좀 기다려. 이 삼총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긴 칼이 있으면 대단히 도움이 되겠는데, 어때?”

“그렇지만 그런 긴 칼은 던지기 힘들어.”

“아니, 떨어져서 싸울 때는 지금 쓰는 칼을 사용하고, 칼은 가지고 다니면서 맞붙어 싸울 때 사용하면 아주 유리할 것같단 말이야.”

“역시! 그것 참 좋은 생각인데.”

조가 말했다.

“당장 칼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옛날 책도 쓸모가 있구나. 자, 가자. 우리들이 앞장서겠다.”

“앨런, 에르츠, 조심해서 가요.”

휴가 두 사람의 손을 쥐었다.

조-짐은 광장에 20명 정도의 부하를 모았다. 모두 힘센 뮤탄트들이었다.

“모두에게 말해 두겠다. 이 두사람은 우리들의 형제다. 그러니까, 이 두사람이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 주어라. 또, 적에게 공격받으면 도와 주어야 한다. 알겠나?”

뮤탄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뭔가를 중얼거렸다. 불만스러운 듯한 위험한 공기가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그 때, 가장 앞에 앉아 있던 귀가 무척 큰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우리들은 뮤탄트이다. 때문에 우리들은 머리가 둘달린 두목의 명령이라면 언제라도 따른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명령에는 절대로 따르지 못한다. 그 놈들의 얼굴을 보면 죽여 버리겠다.”

“내기 부탁하는 것인데도 안 되겠어?”

조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그는 눈을 크게 뜨며 머리를 저었다. 조-짐은 가만히 보브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보브가 슬롯 머신을 들고 재빠르게 총알을 날렸다. 총알은 그 남자의 얼굴에 정면으로 명중해서 뼈가 부서지는 소리를 냈다. 그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져 죽었다.

“나의 명령을 듣지 않는 놈은 이렇게 된다. 너희들 중에 이렇게 되고 싶은 자가 있나?”

조가 또 조용히 말했다. 뮤탄트들은 뒷걸음치면서 고개를 저었다. 조-짐이 명령했다.

“롱암, 포티 원, 그리고 엑스는 보브와 이 두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 나머지는 여기서 기다려.”

그리고 빌 에르츠와 앨런 마호니를 향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자, 나머지는 당신들의 손에 달렸소. 잘 하고 오시오.”

“고마와요, 조-짐.”

두 사람은 조-짐과 악수하고 나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다리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보브가 앞에 나섰다. 밑으로 40계단 정도 내려간 곳에서 보브는 일행을 멈추게 하고 롱암과 포티 원, 엑스 세 사람에게 말했다.

“두목의 명령이다. 너희들은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두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면 곧바로 두목에게 알려야 해. 알겠지?”

세 뮤탄트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보브는 에르츠와 앨런에게 말했다.

“멋진 식사를!”

“멋진 식사를!”

인사를 마치자마자 그들은 아래로 향했다. 여태까지는 고향이었던 그 곳- 그러나 지금 그곳은 가장 위험한 적의 영토가 되어 버렸다.

부선장 피니어스 내비는 에르츠 기관장의 방을 조사하고 있었다. 에르츠는 지난 번 무탄트의 습격 때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다. 분명히 벌써 죽음을 당해, 그 시체는 무탄트들에게 먹혀 버렸을 것이다.

내비는 부선장으로서 다음의 기관장을 임명할 권리가 있었다. 본디는 기관장 보좌를 해왔던 모트 타일러가 자동적으로 승진해야 하겠지만 그도 역시 죽어 버렸다.

그러나 내비는 두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그는 에르츠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에르츠와는 도저히 마음이 맞지 않았고, 더군다나 그는 자신보다 머리도 좋았고 행동도 적극적이었다.

‘마침 좋은 기회다. 이 기회에 기관장 자리에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앉혀 두자. 그리고 기관장 보좌도 내 심복을 추천하자.’

내비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그전부터 마음 속에 숨겨 둔 야심이 있었다. 그것은 하루라도 빨리 이 배의 선장이 되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선장이 되어서 배 안을 몰라 볼 정도로 바꾸어 놓으려 하고 있었다.

내비는 기관장의 책상에 앉아서 서랍 안을 뒤지다가 멍청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금 배 안의 규칙은 너무 흐트러져 있다. 그 규칙을 좀더 엄중하게 고쳐야겠다. 그리고 특히 신분과 계급을 정확히 구별해

농자. 농민은 농민, 기술자는 기술자, 과학자는 과학자답게 만든다.
그리고 손윗사람에게 반항하는 놈은 즉시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는 그 때의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를 띠었다.

‘지금의 선장으로는 안 된다. 선장은 이제 너무 늙어 버려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더구나 평의회 의원들도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
평의회 따위는 곧 해산시키고 내 판단만으로 무엇이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내비는 눈썹을 찌푸리며 계속 생각했다.

‘그렇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 이 기회에 선장을 죽여 버
리자. 그리고, 내가 선장이 되는 거다. 평의회는 해산시키고 반대
하는 놈은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모조리 에너지 전환로에 처넣어
버리자.’

“남의 방에서 무얼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뒤에서 말소리가 나서 내비는 펄쩍 뛰어오를 정도로 깜짝
놀랐다. 그리고 돌아본 순간 그는 또 한 번 놀랐다.

거기에는 죽은 줄로만 생각하고 있던 벨 에르츠 기관장의 의젓한
모습이 동상처럼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 빌이잖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이렇게 살아 있는
데.”

“아니, 우리는 틀림없이 자네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앉아서 이야기해 봐.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에 갔었나?”

“내 의자를 주면 앉아서 이야기하지요.”

빌 에르츠는 조금도 웃지 않고 말했다. 내비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알았네, 빌. 어쨌든 내 서랍을 함부로 뒤졌는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반역자일 거라고 의심했었나요?”

빌 에르츠는 얼굴에 전혀 웃음도 띠지 않고 내비를 향해 말했다.

“그럴 리가 있나!”

내비는 당황하며 말했다.

“자네는 그 요란한 싸움 뒤에 행방불명되었어. 지금까지 우리들은 틀림없이 자네는 죽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 때문에 새 기관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네. 그래서 새 기관장을 임명하는 데 무슨 참고가 될 만한 것이라도 있을까 해서 조사해 보려고 했던 거야.”

“선장님이 그렇게 하고 말했습니까?”

“아, 아닐세. 아직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내 책상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당신 개인의 생각이군요.”

“아아, 알았어. 빌. 사과하겠네.”

내비는 화가 나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을 억누르면서 말했다. 그에게는 빌이 대단한 골칫거리였다. 게다가 바로 지금 선장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기분이 나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나, 빌?”

“뮤탄트에게 쫓겨서 그쪽 나라로 들어갔었습니다. 이리저리 숨어 있다가 간신히 빠져 나온 겁니다.”

“그것 참 운이 좋았군.”

“그래요.”

빌 에르츠는 잠시 무슨 생각을 한 다음 내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천천히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내비 부선장님, 그곳에 숨어 있는 동안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래? 그게 뭔데?”

“우리들이 휴 호일랜드를 에너지 전환로에 넣어 버리려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라고!”

내비는 깜짝 놀라서 빌을 쳐다보았다.

“자네, 그 반역자를 감싸 줄 생각은 아니겠지?”

빌 에르츠는 천천히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그럴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뮤탄트의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뮤탄트는 그를 죽이지 않고 마을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를 가둔 것을 알고는 위험을 무릅쓰고 구하러 왔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비는 머리를 흔들었다.

“모르겠어. 사실은 나도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뿔
든 뮤탄트에게 꽤 신용을 얻은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휴
한 사람 때문에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하겠습니까? 아마 지금쯤 휴는
뮤탄트들을 자기 부하로 만들어서 명령하는 입장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흠.”

내비는 빌 에르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자네는 무엇을 말하려는 거지?”

“간단합니다. 뮤탄트들을 싸움으로 정복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대를 만들어서 쳐들어간다 해도 100~200
명 정도로는 상대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뮤탄트 나라의 두목이 된
휴 호일랜드와 타협하면 한 사람도 피를 흘리지 않고 뮤탄트들을
조용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내비는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빌 에르츠의 말은 옳았다.

‘뮤탄트들과 잠시 타협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 녀석들을 일단
안심시켜 놓고 틈을 노려서 모두 죽여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는 빌 에르츠를 다시 쳐다보았다.

“그렇지만 누가 휴 호일랜드가 있는 곳까지 갔다오지? 그곳까지 갔다가는 뮤탄트들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지 않나?”

그렇게 말하고 그는 갑자기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는 듯,

“그래, 자네가 가면 어떻겠나? 자네는 배 안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일세. 자네라면 그 모험에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어때, 빌, 가 보지 않겠나?”

에르츠는 한참 동안 잠자코 있다가 이윽고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내가 해 보지요.”

“역시 자네야. 자네의 용기에는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군. 그럼, 이만.”

내비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내비는 마음 속으로 혀를 날름 내밀었다. 잘 되든 안 되든 그로서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만약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내가 손해볼 것은 없다. 빌 에르츠가 뮤탄트에게 죽음을 당한다면 오히려 방해꾼이 없어져서 더 좋지.’

그는 기관장실 문을 뒤돌아보면서 또 한 번 그런 생각을 했다.

저것이 켄타우리다.

그러나 한편 빌 에르츠도 방 안에서 빙긋이 웃으면서 주먹으로 손바닥을 두드렸다. 물론 그는 휴를 배반한 것이 아니었다. 빌 에르츠는 내려오자마자 휴와 의논했던 일을 실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젊은 과학자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만약 피니어스 내비를 이쪽 편으로 만들게 되면 훨씬 일이 빨라진다.

내비를 위로 데리고 가서 저 우주를 보여 주자. 그리고 그를 설득하면 ‘배’의 지배권을 한꺼번에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내비 쪽에서 한 번 더 뮤탄트 나라에 가라고 했다. 이 기회에 위에 가서 휴를 만나 내비를 끌어들이는 일을 의논하자. -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 다음에 전환로를 점검하고 몇 사람의 기관부 상급 기술자와 만나 오랫동안 자신이 없어도 기관부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지시해 두고, 내비에게 사람을 보내어 위에 간다고 알렸다.

빌 에르츠는 이윽고 미리 이야기해 둔 계단까지 갔다. 거기에는 포티 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가서 휴 호일랜드를 찾아와. 나는 뒤에 올라가겠다.”

포티 원은 알았다고 대답하자마자 놀랄 정도의 빠른 동작으로 성큼성큼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다. 그 뒤를 롱암이 에르츠를

호위하며 함께 올라갔다.

포티원은 곧 조-짐의 방으로 달려갔지만 보브밖에 없었다. 보브는 휴가 있는 곳을 알지 못했다.

“그럼, 조-짐은 어디에 있지?”

“두목은 칼 만드는 곳에 있다.”

포티원은 칼 만드는 할멈이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갔다.

칼 만드는 할멈은 뮤탄트 사이에서 아주 존경받고 있는 인물 중의 한 사람이었다. 뮤탄트 나라에서 칼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이 할멈 한 사람뿐이었으니까.

칼 만드는 방은 조-짐의 방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 문에는 ‘열역학 연구소’ 라고 새겨져 있었지만 그런 것은 글씨를 읽을 줄 모르는 보통 뮤탄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였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자 조-짐이 칼 만드는 할멈과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할멈은 손이 넷 달린 뮤탄트였다. 지금 할멈은 화로 안에서 새빨갳게 달궈진 쇠를 꺼내어 네 개의 손을 함께 사용해서 칼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칼은 보통 칼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다. 보통 칼보다 4~5배나 긴 칼이었다.

포티원의 이야기를 듣자 조-짐은 머리를 끄덕이고는 먼저 돌아가라고 말했다.

조-짐은 그 방을 나와서 곧바로 중력이 없는 계단으로 올라갔다.
“저 녀석은 요즘 주조종실에만 쳐박혀 있구나. 밀가 돈거 아냐?”
짐이 조를 향해 말했다.

“아니, 저 녀석은 이 우주선의 조종법을 배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것이 정말 가능할까? 몇백 년 동안 잊고 있었던 기술인데.”

“글쎄. 하지만 저 녀석에게는 뭔가가 있어. 우리들도 어느새 저 녀석이 말하는 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봐도 알잖나?”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어. 나는 때때로 저 녀석이 이 우주선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배에 탄 조상들과 가장 닮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 적도 있어.”

두 사람은 위로 올라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이윽고 주조종실 앞까지 가자 거기에는 스코티와 액스가 와 있었다. 이 두 사람은 휴의 경호원으로 임명되어 있었다.

“휴는 안에 있나?”

스코티가 주조종실의 둥그런 조종석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안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둥근 천장을 가득 메운 대우주의 별들이 흘러내릴 듯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멈추더니 천천히 확대되어 갔다.

휴는 이제 이 우주 전망용 장치를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게 되었다.

조가 소리를 치자 휴는 일등 우주 항해사 자리에서 뒤돌아보았다.

“조-짐”

“에르츠가 너를 만나고 싶어해. 빨리 내려가 봐.”

“그것보다도 이리로 와보세요. 보여 줄 것이 있어요.”

조-짐은 선장석에 걸터앉았다.

“보여 줄 거라니?”

“저쪽에 있는 별 말이에요.”

“저 별이 어쩐다는 거지?”

“저 별은 처음에 내가 여기에 왔을 때보다 유난히 커졌습니다.”

“아, 그렇군, 대단히 주의 깊게 관찰했군. 내가 처음 봤을 때는 거의 보이지 않았었는데.”

“결국 우리들은 저 별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선은 본디의 목적지에 상당히 가까이 접근했다는 거죠.”

조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렇군, 어째든 우주선이 날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 다행이다.”

휴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것은… 조-짐, 저것이 우리들의 우주 여행 목적지, 바로 켈타우리 별이 아닐까요?”

조-짐은 놀란 듯한 얼굴로 다시 한 번 그 별을 보았다.

“그리고 보니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많아. 이 우주선은 몇백 년 동안 아무도 점검도 하지 않고 날고 있어. 방향이 틀릴지도 몰라.”

“그런 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가까운 별이고, 또 우주선은 저 별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것을 우리들의 켄타우리로 생각하는 게 어떻겠어요?”

조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좋아, 휴. 자, 이제 그만 내려와. 그런 것보다 좀더 중요한 일이 있어.”

휴는 불만스러운 얼굴을 했다. 목적지 별을 알았는데, 그것도 꽤 가까이까지 와 있는 것이 확실한데도 왜 조-짐이 하나도 감격하지 않는 걸까? 그는 납득이 가지 않았다.

휴는 마지못해 조종석에서 내려왔다.

상식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에르츠의 이야기를 듣자 휴도 흥분했다.

“그것 참 다행이군요. 그런데 내비를 불러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앨런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자네에게 연락이 가면 그를 맞으러 오는 거야.”

“그러나 그 놈이 앨런을 믿고 정말 위까지 올라 올지가 의심스럽군.”

조-짐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야심도 많고 허영심도 강한 남자입니다. 그것을 잘 이용하면 반드시 이곳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 에르츠는 앨런에게 내비가 오려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

“알았습니다. 꼭 잘해 보겠어요.”

앨런은 자기가 활약할 때가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힘주어 말했다.

“부탁해, 앨런. 성공을 빌겠네.”

“걱정 마십시오. 꼭 해내겠습니다.”

앨런은 곧 출발했다.

마을에 들어갔으나 그는 곧 부선장을 만나지 못했다. 농민이 부선장을 만나려면 먼저 신청을 하고 나서 허락을 받을 때까지 집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물론 앨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사무관을 향해 큰소리로 말했다.

“기관장이 내비 부선장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지금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건 안 돼. 규칙 위반이야.”

“이건 무척 급한 일입니다. 만약, 당신 때문에 이 연락이 늦어진다면 당신은 에너지 전환로에 갈지도 몰라요.”

이 말에는 사무관도 기분이 섬뜩해지는 것 같았다. 앨런은 계속해서 큰소리로 외쳤다.

“나는 내비 부선장에게 비밀 사항을 전하라는 에르츠 기관장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너무나 큰 소리에 놀란 호위병들이 급히 달려왔다. 그 소동에 내비가 얼굴을 내밀었다.

“대체 왜 이리 소란스럽냐?”

“이 남자가 에르츠 기관장에게서 비밀 전달 사항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규칙 위반으로 체포할까요?”

“아니, 기다려.”

내비는 사무관과 호위병에게 물러가라고 하고 앨런을 방으로 들어오게 했다.

“무슨 연락인가?”

“에르츠 기관장이 당신에게 뮤탄트 나라의 근처까지 오시라고 합니다. 휴 호일랜드와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내비는 앨런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을 보아 무엇인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다.

“너는 에르츠와 어디서 만났지?”

“저는 그의 호위병으로서 도중까지 에르츠 기관장을 따라갔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곳에 가신다면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내비는 코웃음을 쳤다.

“바보같은 소리! 뮤탄트 나라 따위에 누가 가려 하겠느냐. 휴 호일랜드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다면 당장에 호위병을 보내 그 녀석을 붙잡아 올 것이다.”

거기서 앨런은 마지막 수단을 썼다.

“에르츠 기관장은 만약 당신이 두려워한다면 오지 않아도 좋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관장이 직접 평의회에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내비의 얼굴빛이 바뀌었다.

앨런은 당장이라도 내비가 방밖의 호위병을 불러서 자기를 감옥에 넣어 버리든가, 칼을 뽑아서 내리치려 하는 것은 아닐까 초조해졌다. 앨런의 칼은 밖의 호위병들에게 빼앗겨 버렸다.

내비의 마음 속에서 분노와 허영심과 계산 따위가 격심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잠시 뒤, 그 얼굴에 빙긋하고 웃음이 떠올랐다.

“좋다. 함께 가자.”

내비는 가능하면 호위대를 데리고 가고 싶어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뮤탄트들이 약속 위반이라고 하며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앨런과 둘이서만 떠나기로 했다.

윗계단으로의 여행은 처음 얼마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점점 올라감에 따라 앨런의 귀에는 책장을 넘기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 왔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뮤탄트들의 포위망이 완성되어 가는 소리였다.

20계단 정도 올라갔을 때, 앨런은 멈춰 서서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이상한 휘파람 소리가 났다.

“나는 앨런이다.”

앨런이 말했다.

그 순간 좁은 광장의 사방에서 발에 붕대를 감은 빌 에르츠와 휴, 그리고 조-짐과 보보가 한꺼번에 모습을 나타냈다.

조-짐과 보보의 모습을 보자 내비는 피가 멈추는 듯했다.

‘속았다! 함정에 걸렸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그는 무의식적으로 돌아서서 달려갔다. 그렇지만 5~6 걸음도 못 가서 보브에게 붙들려 바닥에 쓰러졌다. 멍

살을 잡혀서 일으켜졌을 때는 벌써 칼을 빼앗겨 그것으로 자신의 목이 겨누어지고 있었다.

빌 에르츠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가까이 왔다.

“대,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내비는 큰소리로 외쳤다.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을 불러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빌 에르츠가 그다지 미안한 얼굴이 아닌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조-짐과 휴를 소개했다. 내비는 표정을 굳힌 채 두 사람을 노려보았다.

“그런데 전에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된 거지? 나를 유인하기 위해서 꾸민 내 말이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당신에게 꼭 해 두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 옆에서 말했다.

“꼭 알려 주고 싶습니다. 내비 부선장님, 이 ‘배’ 는 진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는 끝없는 대우주의 공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건 정말입니다. 나도 보았습니다.”

빌 에르츠도 나서며 말했다.

“에르츠. 자네마저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정신 나갔어?”

내비가 어이없다는 듯이 외쳤다.

“그건 당신이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이 ‘배’ 는 정말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나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걸 본 순간 처음에는 나의 눈을 의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배’ 의 밖에는 거대한 ‘배’ 그 자체보다도 훨씬 큰 우주가 있습니다. 우리 ‘배’ 만한 별들도 있습니다. 그 광경은 성서에 쓰여 있는 것과 정말로 똑같습니다.”

내비는 세계 머리를 저었다.

“정말 웃기는군. 자네의 말은 이치에 맞지 않아. 배보다 크다는 게 무슨 말이지? 배보다 큰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것들은 모두 배의 일부분임이 틀림없어.”

“나도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틀렸다는 것을 알았지요. 당신도 직접 보게 되면 내 말을 인정할 겁니다.”

“확실하게 말해 봐. 자네도 과학자지, 에르츠? 그런데도 배보다 큰 것이 있다고 믿나? 하나의 사물이 존재할 때는 그것이 차지하는 고유의 장소가 있어. 그리고 그 장소는 모두 배 안에 있다. 그 배보다 큰 사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린 집어치워!”

조가 짜증을 내듯이 말했다.

“올라가서 보면 알 거야. 자, 가자.”

모두 일어섰다. 내비는 목을 움츠리며 모두를 둘러보았다.

“뭐야? 어딜 가려는 거지?”

“위로. 주조종실에 간다.”

“싫소. 나는 안 가겠소!”

내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과학자인 그도 몇백 년 전부터 믿어 오고, 또 지켜왔던 규칙을 깨는 것이 역시 무서웠던 것이다. 거기에 가면 천벌이 내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내비, 당신은 우리들과 함께 그곳에 가는 겁니다. 가서 대우주의 신비한 모습을 당신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불 필요 없다! 그런 것은 상식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다!”

내비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그 상식이 틀렸단 말입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가르쳐 주겠단 말입니다.”

“싫다! 밑으로 돌아가겠다.”

내비는 문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 앞을 조-짐이 가로막았다. 주위에서 에르츠와 휴, 앨런, 그리고 칼을 든 보브가 한 발자국씩 다가왔다.

반항해 봤자 이길 가망이 없다.

내비는 상황 판단이 빠른 남자였다. 그는 순간적으로 결심하고 두렵다는 표정을 겉으로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알았어. 그렇게까지 나오면 하는 수 없지. 가도록 하지.”

조-짐이 휘파람을 크게 불었다. 그러자 지금까지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벽 뒤에서, 천장에서, 사다리 뒤에서 열 명 정도의 뮤탄트들이 소리도 없이 나타났다. 내비는 등이 오싹해졌다. 만약 호위대를 데리고 왔다해도 모두 죽음을 당했을 것이 틀림없다.

일행은 윗계단을 향해 올라갔다.

내비는 무중력 지역에 오자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는 구역질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느라고 식은 땀을 흘렸다.

꽤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행은 주조종실까지 왔다.

휴는 내비를 선장 자리에 앉혔다. 휴가 조종조석의 우주 전망 장치를 조종하자 방 안이 어두워졌다.

“저것이에요! 보세요. 어떻습니까?”

휴가 큰 소리로 말하며 천장을 가르켰다.

내비는 오랫동안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두워서 그 표정은 확실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 우주의 광경에 완전히 압도된 것만을 확실했다.

이윽고 내비는 감탄한 듯한 소리로 말했다.

“장관이구나! 정말 대단해! 이런 광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상식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겠지?”

조가 물었다.

내비는 좀 망설이더니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알았어요.’ 하고 말했다.

당신이 선장.

휴는 그 때부터 그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휴의 말투에는 열의가 깃들여 있었고, 어떤 사람도 감동할 정도의 진지함이 있었다. 그는 옛날의 승무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성과 이상을 되찾고, 이 우주선 본디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그 목적의 별 켄타우리에는 얼마 안 있어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안에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에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내비는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데,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겠군. 자네는 옛날 이 배를 만들었던 선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켄타우리로 여행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 안에 새로운 질서와 규칙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지?”

“예, 그래요. 이 여행을 끝내기 위해서는 주엔진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배의 조종 장치, 추진 장치 그 밖의 위치에 모두 승무원을 배치시켜 놓아야 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와 규칙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엔진이나 조종에 관해선 잘 알지 못해. 그것은 자네와

에르츠 기관장이 말하는 것이 좋을 거야. 그리고 나는 거기에 필요한 새로운 질서와 규칙을 만드는 일에 협력하겠네. 나는 그 방면에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우리들 편이 되어 준다는 말이군요!”

빌 에르츠가 흥분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아, 진정하게. 그렇지만, 여러가지를 잘 생각해야 돼. 먼저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 일을 어떻게 배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평의회나 과학자들에게 알려 주면 좋을까 하는 걸세.”

“그건 이미 결정했어요! 모두 이 곳으로 데려와서 저 대우주를 보여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의견을 따를 겁니다.”

네비는 머리를 저었다.

“그건 위험한 생각이야.”

“왜죠?”

“자네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모른다. 그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냉정을 잃고 거칠게 행동을 한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야.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것이 모두 틀렸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자 곁에서 에르츠가 입을 열었다.

“그건 부선장의 말이 맞아, 휴. 특히 이걸 신앙과도 관계가 깊은 것이다. 모두가 동요되었을 때 평의회에서 우리들을 배반한 악마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믿고 우리들을 죽이려고 할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죠?”

휴는 불만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먼저 힘으로 모두를 지배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조-짐은 뮤탄트의 두목이다. 그에게 뮤탄트 부대를 지휘하게 해서 우리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자들을 억누르는 것이 좋아.”

내비가 조-짐을 보면서 말했다. 조-짐은 아무 대답도 없이 휴를 바라보고 있었다.

휴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는 지금까지 진실을 보여 주면 모두 깨우치고 올바른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힘으로 억눌러 버리는 방법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

“휴, 자네의 생각은 알겠다.”

내비가 휴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힘을 쓰자고 한 것은 처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야. 혼란이 가라앉고 질서가 잡히고 나면 과학자들에게 대우주를 보여 주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모두 잘 될 거라고 생각해.”

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어.”

내비가 모두를 둘러보며 말을 계속했다.

“이 새로운 질서를 수립했을 때, 자네들은 지금 선장에게 모든 것을 맡길 작정인가? 잘 알고 있겠지만 그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모두 고개를 끄덕거렸다. 내비는 말을 계속했다.

“그 때 가서는 새로운 선장이 필요하게 된다. 그것을 지금부터 정해 두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누가 새로운 선장에 적합할까? 빌 에르츠, 자네가 하겠나?”

내비는 빌 에르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빌 에르츠는 당황했다. 사실은 그도 지금까지 선장이 되는 것을 꿈꾸어 왔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렇게 물어 오니까 자신이 거기에 어울린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그는 머리를 저었다.

“나는 기관장이 좋습니다. 우주선을 조종할 때, 엔진을 내 손으로 직접 조종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휴 호일랜드, 자네는?”

“천만에요!”

휴는 외치듯이 말했다.

“나에겐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게다가 나는 이 우주선 조종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우주 항해사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지? 조-짐,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짐이 놀라서 큰소리로 외쳤다.

“그럼, 내비, 당신은 어떻게? 당신은 지금까지 부선장이었잖소. 당신이라면 선장직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나는…”

내비는 우물 거렸다.

“당신이 가장 적격이오. 내비. 꼭 승낙해 주시오. 어때, 휴?”

“나도 찬성이예요.”

휴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조가 반대했다.

“아니, 난 반대다. 나는 이 놈을 아직 잘 모른다. 이 놈이 선장이 된다면 나는 협력하지 않겠다.”

“무엇을 모른다는 거요. 조?”

빌 에르츠가 말했다.

“그는 배 안에서 평의회와 젊은 과학자들을 잘 이끌어오고 있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장 적당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반대하는 사람은 닥치는 대로 목을 잘라 버리는 게 좋아.”

“내비가 선장이 되면 목을 자르지 않고도 될 수 있어요.”

“어쨌든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곤란한데.”

내비가 이마에 손을 대고 말했다.

“만약, 내가 선장이 된다고 해도 당신의 협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소. 이 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뭐니뭐니 해도 뮤탄트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오. 그런데 나는 당신들에 대해 전혀 모르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선장을 떠맡아 책임질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빌 에르츠가 말했다.

“조-짐이 부선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비와 함께 이 배안을 책임지고 관리하면 어떻겠어요?”

“나는 싫어.”

조가 내뱉듯이 말했다. 그렇지만 짐이 조를 향해 말했다.

“이봐, 조. 우리들도 이 정도에서 타협하는 게 좋잖아. 결국 모두가 힘을 합하자는 거 아닌가? 그것까지 거절하는 것은 언젠가 한 맹세에도 위반되는 거야.”

조는 짐의 얼굴을 노려보았으나 곧 머리를 숙였다.

“알았어. 편리한 대로 해.”

“그럼 이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내비가 선장. 조-짐이 부선장입니다. 나중에 좀더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세웁시다.”

빌 에르츠가 다짐하듯이 말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모두는 어떻게 평의회를 제압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휴는 내비가 때때로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물론 휴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었지

만, 그 때 내비는 마음속으로 ‘모두 잘 되어가는군.’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란이다!

그 뒤 열 시간 가량이 지난 다음에 마을의 큰 홀에는 평의회 의원 전원이 모여 있었다. 부선장 내비의 요구에 의해 임시 평의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넓은 홀은 먼 옛날에 승무원의 건강을 위해 만들어진 체육관이었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한 명도 없었다.

내비와 빌 에르츠는 평의회 의원이 들어올 때마다 기록하는 사무관에게 이름을 알려 주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나타내지 않았지만, 마음 속으로는 무척 긴장하고 있었다.

이 평의회는 물론 보통 평의회가 아니다. 모두가 모인 다음에 회의가 시작되면 그 때에는...

물론 내비와 에르츠는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만약 만에 하나라도 뜻밖에 일에 착오가 생긴다면, 그 때는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두 사람 모두 이 큰 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윽고 시간이 되었다.

늙은 선장이 두 사람의 호위병에게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홀안으로 들어와서 선장석에 앉았다.

선장은 옛날보다 훨씬 건강이 나빠 보였다. 몸이 아주 안 좋아서 이런 회의에는 나오지 않겠다는 것을 억지로 나오게 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의자에 앉아 초조한 듯이 내비를 쳐다보았다.

“부선장. 뭘 우물쭈물하고 있지? 빨리 회의를 시작하게.”

“알았습니다. 선장님. 곧 시작하겠습니다.”

내비는 이렇게 말하면서 홀 입구 근처에 있는 빌 에르츠를 흘끔 쳐다보았다. 빌 에르츠는 머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것은 ‘조금만 더 기다려요.’ 하는 신호였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뜻이다.

“빨리 하지 않고 뭐하는 거요, 부선장?”

늙은 선장이 또 재촉했다. 평의회의 원로들도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내비를 쳐다보았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었다. 내비는 단상에 올라가서 홀을 메운 수십 명의 평의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럼, 이제부터 임시 평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제는 세 가지 있습니다. 사무관, 첫번째 의제를 읽어 주시오.”

사무관이 서류를 들고 일어나서 큰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첫번째, 제 9 지역 마을의 주임 과학자인 브라운은 건강상의 이유로 퇴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평의회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평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다. 이런 하찮은 문제로 임시 평의회가 개최된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체 이게 뭐요, 내비 부선장? 이런 하찮은 일 때문에 이번 회의를 연 거요?”

“하지만, 선장님.”

내비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즈음, 평의회 의원들 중에는 내가 선장 대리로 일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조그만 문제라도 정식으로 선장님의 결재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내비는 만에 하나 계획에 착오가 생겨 일이 늦어질 경우를 생각하고 아무 것도 아닌 의제 몇 가지를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선장은 조금 신경질이 난 듯이 손을 저었다.

“좋아, 알았네. 그 의제는 인정한다. 다음 의제로 가세!”

내비는 또 흘끔 에르츠 쪽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에르츠는 또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사무관에게 다음 의제를 읽으라고 지시했다.

“제 3 구역의 마을에 있는 화락 농장에 정체 불명의 해충이 발생하여 수확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기준량의 달성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 3 구역의 사료 배합을 줄여야 합니다. 평의회의 승인과 원조를 요청하는...”

“알아서 해!”

선장은 의제를 낭독하는 도중에 짜증을 내며 호통을 쳤다.

“내비 부선장. 이 정도의 문제도 직접 처리하지 못한다면 평의회에 당신을 해고하도록 요구하겠소.”

하지만 내비 부선장은 이제는 노선장의 말 따위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노선장의 말 도중에 빌 에르츠가 내비를 향해 머리를

크게 꼬덕였다. ‘준비 완료’의 신호였다. 그러자 내비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선장 쪽을 향해 큰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그럼, 선장!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의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들은 윗계단에 살고 있는 뮤탄트를 적으로 여기고 언제든 공격하려고 해왔소. 우리는 한 번도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협력하려 하지 않았습시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오. 나는 이에 평의회가 잘못을 인정하고 뮤탄트와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을 요구합니다!”

선장은 새파랗게 질려 버렸다.

“내비, 자네는 규칙을 어기려는 것인가?”

“선장, 규칙에는 어디에도 뮤탄트와 화해하는 것에 관해 쓰여 있지 않습니다.”

“뭐, 뭐라고! 자네는 선장의 권한을 무시하려는 건가?”

“선장, 당신은 이미 선장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할 능력이 없소. 당신은 이제 그만둬야 하오!”

“뭐, 뭐라고!”

노선장은 비틀거리면서 일어섰다.

“내비, 너는 반역자다. 너를 부선장에서 해고하며 사형을 선고한다!”

노선장은 주위에 있는 호위병들을 돌아보며 쉼 목소리로 외쳤다.

“이 놈을 체포해!”

그렇지만 호위병들은 꿈쩍도 않고 선장의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호위병들은 내비의 심복 부하들이었던 것이다.

갑자기 평의원들이 안색이 창백해지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노선장은 놀랄 만한 광경에 입이 딱 벌어져 내비를 쳐다보았다. 내비는 평의원들을 쏘아보며 말했다.

“나는 나의 판단으로 뮤탄트의 통치자와 교섭하여 평화 조약을 맺었소. 지금 그 통치자가 이 회의장에 와 있소. 자, 보시오.”

그는 팔을 올려 입구의 문을 가리켰다. 빌 에르츠가 그것을 신호로 문을 활짝 열었다. 그 곳에서 휴 호일랜드를 선두로 조-짐, 보브, 그리고 20명 정도의 뮤탄트들이 들어왔다. 조-짐이 뽑은 힘센 부하들이었다.

모두들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금속 갑옷을 입고, 허리에는 팔 길이 정도 되는 긴 칼을 차고 있었다.

평의원과 호위병들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칼에 손을 댄 채 머뭇거리기만 하고 있었다. 내비는 선장을 향해 말했다.

“이쪽이 뮤탄트 통치자이오, 선장. 평화조약을 맺을까요?”

노선장은 살이 찌서 뒤룩뒤룩한 몸집을 부르르 떨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참 뒤, 가까스로 평정을 되찾고 나서 호위병들을 향해,

“저 놈들을 여기서 쫓아내! 어서 저 놈들과 내비를 죽여! 뭇들하고 있는 거야!”

내비는 조-짐에게 엄지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키며 일어섰다. 짐이 뒤에 있는 보브를 돌아보았다. 그 때, 보브가 팔을 휘두르며 칼을 던졌다. 다음 순간, 노선장의 팔에 예리한 칼이 깊숙이 박혔다.

“반란이다! 반란이다! 어서 싸워라!”

선장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내비는 선장 옆에 버티고 서서 숨을 죽이고 쳐다보고 있는 평의원들을 둘러보았다.

“누구,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소?”

처음에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조금 뒤에 머리가 허연 늙은 평의원이 일어나서 수염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신’은 너를 벌할 것이다. 내비! 너는 ‘성서’에 나오는 반란자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내비는 조-짐에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짐이 룡암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다음 순간 늙은 평의원은 목에 칼이 박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자, 다음은?”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제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단 말ियो? 그럼, 여기에서 나는 내가 새로운 선장이 될 것을 선언하겠소!”

“우주선 뱅거드 호의 내비 선장 만세!”

빌 에르츠가 칼을 힘차게 뽑아 올리면서 외쳤다.

“우주선 뱅거드 호의 내비 선장 만세!”

내비를 따르는 젊은 과학자들이 이어서 따라 외쳤다. 평의원들은 새로운 선장 내비를 지지하는 파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파로 나뉘었지만,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다.

빌 에르츠가 휴에게 눈짓을 했다. 휴는 그 사람의 칼을 빼고 가두어 두라고 명령했다.

반란은 이렇게 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성공하고, 우주선 뱅거드호 안에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다.

반란은 성공하고 새로운 질서가 이룩되었지만 아직 해야 할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다. 뱅거드 호의 ‘마을’ 안에는 새로운 질서에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뮤탄트 쪽에도 조-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었다. 그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그래서 조-짐은 뮤탄트와 새로 뽑은 과학자 후보생 중에서 훌륭한 젊은이들로 토벌대를 편성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을 차례로 없애버렸다.

토벌대 병사들에게는 모두 금속제 갑옷과 긴 칼을 주었다. 갑옷은 칼이나 슬롯 머신의 총알을 막을 수가 있고, 긴 칼은 접근전에서 짧은 칼보다 훨씬 유리했다. 그 때문에 반대자들을 비교적 간단히 진압할 수 있었다.

한편, 휴는 조종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복잡한 조종 장치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아직 산더미 같았기 때문이다. 사실 뱅거드 호의 조종법을 완전히 배운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게다가 휴에게는 과학의 기초가 없었다. 보통의 경우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우주선을 자신의 손으로 조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조종 장치의 이론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랐다. 따라서, 그저 무턱대고 덤벼들었던 것이 오히려 그가 불완전하나마 그럭저럭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원인이기도 했다.

물론, 이렇게 되기에는 이 우주선의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큰 보탬이 되었다. 모든 장치의 구조는 매우 간단한 원리로 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 멈춤과 전진, 밀고 당김이라든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라든가, 붙이고 자르는 것, 또는 오른쪽과 왼쪽 하는 식의 무척 단순한 원리였다.

그러므로 그것을 한번 외어 놓으면 비교적 복잡한 조작까지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우주선의 기계나 장치를 사람이 고쳐야 하거나 조정, 또는 수리, 부품을 교환해야 한다면 휴는 손을 댈 수조차 없을 거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우주선의 구석구석에까지 미치는 세밀한 지식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우주선의 모든 기계와 장치는 모두 자동적으로 조정되며, 부품도 자동적으로 교환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결국 모든 수리가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또 하나, 휴에게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뱅거드 호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는 몇 대째의 자손의 시대가 되어 있을 것인가를 계산해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목적지인 켄타우리에 도착할 때는 우주선의 모든 장치가 설계되었을 때부터 몇백 년이나 뒤의 자손들이 조종해야 할 것이다.

그 때문에 뱅거드 호의 설계자는 될 수 있는 대로 조종을 간단하게 하도록 해 두었던 것이다.

휴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는 도움을 받으면서 조종에 관한 공부에만 몰두했다. 사실 그가 조종실에 틀어박히게 된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휴는 아무래도 폭력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반대자를 죽이는 것으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다른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전달 수 없이 싫었다.

더구나 죽음을 당한 사람들 중에는 휴를 처음으로 과학자로 채용했던 넬슨도 끼어 있었다. 넬슨은 아무리 생각해도 새로운 질서에 따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마을을 탈출하여 반대파에 가담했다가 토벌대에게 죽음을 당했던 것이다.

‘가엾게도...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짓을 해야 하는 걸까?’

그는 넬슨의 죽음을 알았을 때 마음 속으로 이렇게 외치며 머리를 흔들었다. 만약 그가 태어났을 때 넬슨이 그를 도와 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에너지 전환로에 처넣어져서 벌써 옛날에 없어져 버렸을 것이다.

휴는 그 날 하루 종일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바람에 조종 공부가 전혀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또 공부로 되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휴는 선장실로 내비를 찾아갔다. 이제 젊은 과학자들에게 우주를 보여 줄 때가 왔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조-짐이 내비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제 적은 40~50명밖에 남지 않았어. 그것들을 즉시 해치워 버리자고.”

조-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게 좋겠군. 잘 부탁해.”

휴가 멈춰섰다.

“바쁘면 나중에 올까요?”

“아니, 난 이제 돌아갈 거야. 그쪽 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

조-짐이 물었다.

“잘 되어가고 있어요.”

그는 내비에게 젊은 과학자들을 언제 조종실에 데리고 갈 것인가를 물었다. 그러나 내비는 뜻밖이라는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당분간은 데리고 가지 않기로 했네. 자네도 주조종실과 엔진부에는 아무도 들여 보내지 않도록 해. 이것은 승무원과 뮤탄트에게나 마찬가지로야.”

휴는 당황해서 내비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건 어째서죠? 과학자들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는 것

이 이번 계획의 제일 큰 목적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별을 보여 줄 것을 약속하지 않았나요?”

“이봐, 침착해.”

내비는 태연하게 말했다.

“배 안에는 이제 겨우 새로운 질서가 잡혔다. 그러나 아직도 불안정하다. 이런 때에 그들에게 충격을 주어서 동요하게 만든다면 일이 잘못될지도 몰라. 그런 일로 떠들썩해지면 규칙도 흐트러지게 돼.”

“하지만 그건 참 이상하군요. 당신이 선장이 된 것은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 주기 위해서예요. 조그마한 동요는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나는 선장이네. 때문에 선장으로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 이 문제는 이것으로 그만 두자. 자네는 내가 승낙할 때까지 아무도 주조종실이나 엔진부에 들여보내서는 안 돼.”

휴가 항의하려 했지만 옆에서 조-짐이 말했다.

“그게 좋아, 휴. 선장 말대로 해. 지금은 아직 시기가 일러. 진압하지 못한 적도 있어. 언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태야.”

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다.

“내비 선장,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얼마 뒤엔 계획대로 젊은 과학자들에게 우주를 보여 주는 것죠?”

“물론이지.”

내비는 시원스럽게 말했다.

“알았어요. 그럼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조수가 몇 명 필요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주조종실이나 엔진부에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건 좋을 대로 해. 자네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해 봐. 곧 조사해 보고 허락하겠다.”

“알았어요.”

“그럼 난 일이 좀 있어서 이만 나가 보아야겠다.”

내비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또 다른 방

휴는 내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래도 이상한데.”

“뭐가, 휴?”

“선장 말이에요. 약속을 해놓고 그걸 여기다니.”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조가 휴를 달래듯이 말했다. 휴는 뭔가 미덥지 않은 듯이 어깨를 움츠리며 알았다는 몸짓을 했다.

“그건 그렇고, 조-짐,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착륙했을 때 말이에요. 이 우주선이 목적지인 행성에 닿았을 때 어떻게 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조-짐은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너무도 당연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밖으로 나갈 문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러나 마을의 계단이나 어디에도 밖으로 통하는 문은 없습니다. 조종실이나 엔진부에도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뮤탄트 나라에 있을지도 모르겠단. 하지만 그런 문은 우리들도 본적이 없는데.”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조-짐은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데도 없다. 우리들은 문이란 문은 모조리 조사해 보았다. 단지 중앙 손잡이 있는 곳에 열리지 않는 문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것도 밖으로 나가는 문일리 없어. 왜냐 하면, 그 곳은 밖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휴는 벌떡 일어섰다.

“혹시 모르니까 그 곳을 조사해 봅시다. 조-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은 무슨 창고 아니면 기계를 넣어 두는 선실일 거야. 더군다나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았어.”

그렇게 말했지만 휴가 그만두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조-짐도 마지못해 일어섰다. 충실한 보브가 함께 따라갔다.

중앙 손잡이 결의 문은 곧 눈에 띄었다. 조-짐이 문을 열려고 레버를 당겼지만 역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힘이 센 보브가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레버를 잡아당겼다. 그렇지만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였다. 문은 열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역시 말한 대로지?”

그러나 휴는 물려서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는 문득 레버를 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미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밀어 보자 레버는 힘겹게 안으로 조금 밀렸다. 그렇지만, 역시 문은 열리지 않았다.

“부쉬 버려야겠군.”

조-짐이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휴는 아직 체념하지 않았는지 문을 또 밀어 보았다. 그 순간 문은 뒤로 움직이면서 서서히 열렸다.

휴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 은 방이 아니었으며 좁은 통로가 나 있고 그 둘레에 또 하나의 문이 있었다. 그 문은 쉽게 열렸다. 그리고 2m 정도 건너편에 또 문이 있었다.

“정말 모르겠는걸. 문만 계속해서 있는 건 또 무슨 이유지?”

짐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했다.

세 번째 문을 여니 그 곳은 선실로 되어 있었다. 그 선실은 좁게 나뉜 것이 많이 모여 있는 이상한 선실이었다. 보브가 칼을 물고 빠르게 온 방 안을 돌아다니더니 곧 되돌아와서 보고했다.

“문은 없어. 이제 문은 아무데도 없어. 보브가 조사했어.”

“있을지도 모른다!”

휴는 초조해 하면 말했다. 밖으로 통하는 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싫었다.

“보브가 봤어. 문은 없어.”

보브가 또 말했다.

“우리들도 조사해 보자.”

조-짐은 이렇게 말하고 둘러보기 시작했다. 휴도 그 뒤를 따랐다.

그 사이에 휴는 뜻밖의 것을 발견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동안에 휴는 굉장히 흥분했다. 그리고 큰소리로 조-짐을 부르려고 한 순간에 조-짐 쪽에서 먼저 휴를 불렀다.

“이봐, 휴. 이리로 와봐!”

휴는 그곳으로 가보았다. 거기에는 소형 에너지 전환로가 있었다. 작지만 틀림없는 전환로였다.

“정말 알 수 없군. 이 작은 방에 전환로가 들어올리가 없는데. 이 전환로라면 배의 절반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어. 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지?”

휴는 뭔가를 말하려고 하다가 조-짐의 팔을 끌어당겼다.

“그전에 내가 발견한 것을 봐 줘요.”

“대체 뭘 발견했는데?”

“하여튼 와봐요.”

휴는 조-짐을 그가 발견한 장소에 데리고 갔다. 그건 작은 구획의 일부분이었는데, 맞은편 벽은 일종의 유리 같은 투명한 것으로 평범한 스크린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맞은편은 아주 캄캄해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스크린 맞은편에 조종실이 두 개 나란히 있었다. 그 주위에는 주조종실에 있는 것과 같은 조명 조절 장치의 스위치라든가 계기 따위가 죽 늘어서 있었다.

짐이 휘파람을 높이 불었지만 조는 아무 말도 없이 물끄러미 그곳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조는 조종석에 걸터앉아 조종 장치를 주의 깊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휴도 옆의 좌석에 앉았다.

조-짐이 오른쪽 팔걸이의 불빛을 손으로 덮자 선실의 조명이 어두워졌다. 휴는 앞의 스크린에 우주의 모습이 나타나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것은 스크린이 아니라 실제로 밖을 보는 전망창인지도 몰라. 그런데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걸까?’

휴는 생각했다.

그는 ‘발사’ 라고 쓰여 있는 장치에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대었다. 그 순간에 계기반의 한가운데 있는 작은 사각형의 스크린에 붉은 점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며 어딘가에서 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계속해서 ‘에어 록 열림’ 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휴 일행은 놀라서 얼굴을 서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휴가 한번 더 ‘발사’ 장치 위에 손을 대자, 벨이 울리고 스크린 위의 글자가 없어졌다.

그 때 휴 일행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위험한 곳에서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있었던 선실이라는 곳은 사실은 뱅거드 호의 착륙선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전환로 안에 에너지가 들어 있었고, 더구나 뒤의 문을 완전히 닫아 버렸다면 그들은 아무런 여행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로부터 아주 먼 곳에서 순식간에 우주 공간으로 발사되어 버렸을 것이다!

그렇지만, 휴도 조-짐도 설마 그것이 착륙선이라고는 그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조-짐이 조명을 켰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휴가 조-짐에게 물었다.

“조종실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좀 이상하지 않아? 왜 하나의 우주선에 두 개의 조종실이 있을까?”

짐이 이렇게 말하자 조가 싱글거리며 말했다.

“머리가 둘 달린 우리들 뮤탄트도 있어. 배에 조종실이 두 개 있는 것이 뭐 이상할 것은 없잖아?”

“아니, 이것과 그건 달라. 우리들은 우연하게 이렇게 태어난 거야. 하지만 이 배는 빈틈없이 설계되어 있단 말이야. 뭔가 목적이 있는 걸 거야.”

“그렇다면, 어떤 목적일까? 여기에서 우주선을 조종한다는 것은 무리야. 여기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저건 뭐지?”

조가 투명한 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건 혹시 창문이 아닐까? 밖을 보기 위한 것 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까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서 잘못 생각했다고 느꼈지만, 이 스위치 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하면 밖이 보이게 되는 걸 겁니다.”

휴가 죽 늘어 있는 스위치를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말했다.

“그보다 저 에너지 전환로가 이상하지 않아?”

짐이 전환로를 가리키며 말했다.

“에너지 전환로야말로 이런 곳에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닐까?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저쪽 편에서 가져오면 될 테니까 말야. 이런 것을 보면, 이 선실은 다른 곳과 독립해서 에너지를 가질 필요가 있는 특별한 곳인 것 같아.”

그 때였다. 휴의 머리 속에서 어떤 영감이 떠올랐다. 그것은 곧 확실한 하나의 생각으로 모습이 바뀌었다.

“조-짐! 혹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어떤 것 말이야?”

“이 부분은 배와 떨어져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뭐라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글쎄, 여기에는 조종 장치와 소형 전환로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이 부분이 뱅거드 호로부터 독립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음… 뱅거드 호에는 밖으로 나가는 출구가 아무데도 없으니까.”

“결국 이것이 그 출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짐!”

휴와 조-짐은 또 한 번 조종 장치를 보았다.

“발사? 이걸 뭘 밀어낸다는 뜻인가?”

“하지만, 내가 아까 손을 댔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와 짐은 서로 의논했다.

“아까 ‘에어 록 열림’ 이라는 글자가 나왔어.”

짐이 고개를 돌려 세 번째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저것이다. 저것이 에어 록이다. 저것이 짝 닫혀 있지 않으면 엔진이 걸리지 않는 거야.”

“좋아 해 보자.”

“만약 전환로가 독립되어 있다면 저것을 움직이지 않으면 에너지가 오지 않아서 엔진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좋아, 전환로를 움직여 보자.”

“잠깐 기다려. 붕 하고 우주로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곧 공기와 물이 없어져서 죽어 버릴텐데.”

휴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종실을 조사해 보고서는 이것이 독립된 우주선, 즉 착륙선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뱅거드 호가 곧 눈 앞에 착륙하는 순간이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 때는 이 착륙선도 그가 조종하고 있을 것이다. 목적지 별로 향해 내려갈 때 어떤 기분이 들까? 어떤 광경이 보일까?

그는 조종석 아래로 손을 뻗었다. 거기에는 공간이 있었다. 그 안으로 손을 넣자 뭔가가 닿았다.

책인 것 같았다.

꺼내서 표지를 본 순간 휴는 그만 앓 하고 외쳤다. 거기에는 ‘항성간 우주선 뱅거드 호 우주 항행 일지’ 라고 쓰여 있는 것이었다!

우주 항행 일지

조-짐이 휴의 손에 있는 책에 눈을 던지고 말했다.

“이봐, 그것은 옛날 이 우주선의 항행 일지 아닌가? 그것을 읽어 보면 전에 무슨 일이 일어 났었는가 알 수 있겠군. 이리 줘 봐!”

조-짐이 손은 내밀었지만 휴는 건네 주지 않고 뒤적거리면서 읽기 시작했다.

“2172년 6월 2일, 오늘은 이상없음. 순조롭게 항행 중 - 6월 3일, 모두 순조로움 - 6월 4일, 이상없음. 고급 장교 회의를 옴. 그 결과는 별책 기록을 볼 것. - 6월 5일 변화없음.”

“나에게 보여 줘!”

조가 소리치며 짜증난다는 듯이 손을 뻗쳐 일지를 낚아채려고 했다.

“기다려요! 여기에 반란 사건이 쓰여 있어요.

‘6월 6일 0432(04시 32분, 반란이 일어난다. 당직 장교가 감시 TV로 그것을 알아차림. 반란 주모자는 우주 야금 기술자 하프였다. 2등 야금 기술자 하프는 반란자들을 이끌고 사령실을 제외한 전 선실을 점령하고, 스스로를 선장이라 칭하며 당직 장교에게 항복을 요구했다. 당직 장교는 그것을 거절하고 선장실에 반란을 통보했다. 그러나 선장실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1. 당직 장교는 선장과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장교 세명을 선장

실로 파견했다.

2. 에너지 전환로의 동력이 끊어지고 우주선은 관성 비행으로 바뀌었다. 에너지부가 반란자들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이다.
3. 연락을 취하러 갔던 세 명 중 하급 장교인 레이시만 돌아옴. 그의 보고에 의하면 나머지 두 명은 살해당했고, 그는 항복을 권유하러 돌려 보내졌다고 한다. 반란자들이 지시한 최종 기한은 0515까지였다. 나는 그들에게 항복할 생각은 없다.’

여기서부터 그 뒤는 글씨가 틀리는군. “

휴의 말에 조-짐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일지를 쓴 사람은 아마 반란자들의 공격으로 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거야. 계속 읽어 봐.”

“나는 반란에 참가하지 않은 장교들과 연락을 취하려고 했지만 모든 게 허사로 끝났다. 반란자들은 공격의 손을 늦추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운명도 이제 마지막까지 온 것 같다.’

여기에는 진 브로드윙 3등 우주 항해사라고 서명되어 있어요. “

“그 사람이 아마 사령실에 남아 있던 마지막 장교였던 모양이군. 그것으로 끝인가?”

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계속 쓰여 있어요. ’ 2172년 10월 1일(이것은 추정이다. 모든 동력이 끊어졌을 때 우주 시계가 고장을 일으켜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 데오도어 모슨 전

2등 관리사는 뱅거드 호의 임시 혁명 위원회에 의한 선거로 뱅거드 호의 선장으로 뽑혔다.

이 주주 일지의 최후의 날짜로부터 4개월 동안에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하프 등 반란자들은 차례로 사망 또는 처형당해서 반란은 완전히 진압되었다.

그러나 그 무자비한 싸움으로 인하여 여러 우주 장교들과 기술 장교들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승무원의 90%가 죽었다. 선 내는 글자 그대로 폐허, 아니 바로 무덤이었다. 모든 동력은 멈추고 물과 음식의 공급도 끊어지고, 엘리베이터와 자동문도 잠기고 말았다. 선원들 중에는 잠긴 방이나 통로 사이에 갇혀서 죽은 사람도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습도 조절 장치가 멈추었기 때문에 얼어 죽었거나, 더위로 죽은 사람도 많았다. 화학 농장이나 식품 합성 공장에서는 대량의 식료품이 썩어서 지금 선내에는 심각한 굶주림이 닥쳐왔다. 보고에 의하면 사람의 살을 먹는 일마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지금 내가 곧 해야 할 일은 승무원들을 다시 새로운 질서 속에서 뭉치도록 하는 일이다. 새롭고도 엄한 규칙을 만들어 이 괴로운 생활을 어떻게든 빠져 나가야 한다.

식물도 재배해야 한다. 물과 조명, 그 밖에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을 나르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식량과 그 밖의 귀중품들을 약탈로부터 지키고, 모든 설비를 감시하기 위하여 보초도 세워야 한다.

도대체 이 고난을 빠져 나갈 수 있는 것이 정말 가능한 건지조차도 나는 알 수 없다. 다만, 그저 할 뿐이다.“

휴는 거기까지 읽고 얼굴을 들었다. 모슨 선장의 어려움과 고민을 생각해 보니 가슴이 쓰라렸다.

휴는 잠자코 일지는 넘겼다.

그 곳에서부터는 몇 장이 백지인 채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날짜가 없는 이런 문장이 다시 시작되었다.

‘너무 바빴기 때문에 일지를 아주 오랫동안 쓸 수 없었다. 쓸 틈이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또 나로서는 정확한 날짜를 전혀 알 수 없었다. 선내의 우주 시계가 마침내 모두 멈추고 말았기 때문이다.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지금 어느 곳을 날고 있는지, 얼마가 지나야 켈타우리에 도착하는 것인지조차도 전혀 짐작 못 하게 되고 말았다. 엔진은 반란이 일어났던 날에 멈춘 상태 그대로이고, 계기류도 모두 이상이 생겨 믿을 수 없다. 더구나, 나는 기관 기술자도 물리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우주 비행에 대한 일은 거의 모른다. 어쩌면 뱅거드 호는 도중에서 멈추어 영원한 목적지에 닿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지구와의 연락은 반란이 시작되기 조금 전에 한 정기적인 연락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지구에서도 우리들의 사건은 전혀 모를 것이

다. 어쩌면, 우리들은 우주의 먼지가 되어 이대로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후의 그 날이 온다고 해도 그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우주선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일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이다.

오늘 태어난 갓난아이가 또 이상한 불구자라는 보고를 받았다. 머리가 지독히 작고 꼬리가 돌아나 있다고 한다. 나는 새 규칙에 따라서 그 갓난애를 에너지 전환로에 넣도록 명령했다.

가련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쁜 유전을 자손에게 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일까. 이로써 반란 이래 태어난 불구의 아이는 30명에 달했다.

이것이 에너지 전환로에서 새어 나온 방사능의 영향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주 공간으로부터 들어오는 우주선의 영향인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 에너지 부족으로 우주선 보호막이 반란 이래 중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돌연변이의 뮤탄트들이 태어나겠지. 불쌍한 일이지만 한 사람도 살려 둘 수는 없는 일이다.’

휴는 조-짐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자신들이 태어난 비밀을 알고는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가슴 속에서 동정심이 분수처럼 솟아 나왔다. 아마 조-짐들은 그와 같은 엄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애정으로 간신히 살아남은 뮤탄트의 자손일 것이다.

그러나 조-짐의 가슴속이 어떤지 알 수 없지만,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나타내지 않았다.

휴는 다소 안심하고 다시 뒷장을 넘겼다.

다시 백지가 계속된 뒤에 아주 읽기 힘든 흘린 글씨로 다음과 같이 갈겨 쓰여 있다.

‘나는 이미 매우 늙어서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힘도 완전히 흐려져 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얼마 살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후계자를 정해야 할 텐데. 이것은 무척 어려운 문제이다. 부하들 중의 몇 명이 선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벌써 그것 때문에 4~5명 이상 죽었다. 일이 원만히 풀리지 않으면 또 선내는 서로 죽이는 혼란에 휩싸일 것이다.

그 반란 이후에 선내는 완전히 변하고 말았다. 우리들이 젊었을 때 배운 과학적인 사고 방식이 점점 약해져 가더니 지금은 아주 광신적인 사고 방식이 상식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승무원들은 걸핏하면 이 뱅거드 호가 우주선이며, 또 우리가 켄 타우리 별로 향하여 날고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곤 했다.

그러나 그것도 무리는 아니다.

승무원들의 대다수는 이미 이 우주선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선내의 일밖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더구나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생각할 틈도 없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작물을 키우고, 또 위층에 소굴을 이루고 있는

무법자들과 싸우는 일이 고작이었기 때문이다.

나도 꽤 오래 전부터 우주의 일이라든지 지구의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고 말았다.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일지를 탈주자들이 남겨 둔 유일한 착륙선 속에 숨겨 둘 것이다. 선장 후계자를 뽑을 때 반드시 일어날 소동에 이 일지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소동이 진압된다면 다시 한 번 일지를 쓰도록 하자.’

그러나 무슨 선장은 그만 그것을 쓸 수가 없었다. 그의 예상대로 소동은 심각했고, 아마 선장은 그 소동 속에서 죽고 말았을 것이다.

휴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수백 년 전 이 뱅거드 호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는 낡아서 너털너털해진 일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언제까지나 입을 다물고 있었다. 조-짐도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배반

그 이후로도 하루가 다르게 스크린 속의 항성은 점차 커졌다. 항성은 확실히 번쩍번쩍 빛나는 원반 모양으로 보일 만큼 부풀어올랐다. 그것은 보기만 해도 두려운 모양이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머릴 풀어 헤친 우주 마녀처럼 보였다.

휴와 조-짐은 뱅거드 호의 코스를 계산해서 적절한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아득하고 끝없는 우주의 어둠 속으로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주선의 속력에 제동을 걸면 항성의 인력이 우주선을 끌어들이어서 우주선은 항성 주위를 도는 타원형의 궤도에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항성계에 속해 있는 행성을 관찰해서 그것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휴와 조-짐은 몇 번이고 계산을 다시 하여 드디어 정확한 해답을 얻었다. 그것에 의하면 이제 언제라도 제동을 걸어도 좋다. 아니, 지금보다 더 늦는다면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알았다.

“좋다. 그럼 행동으로 옮기자.”

조-짐은 먼저 내비가 있는 곳으로 갔다. 휴는 빌 에르츠에게 갔다. 빌 에르츠는 눈을 반짝였다.

“그래? 드디어 때가 온 건가?”

“나와 함께 선장이 있는 곳으로 갑시다.”

두 사람은 도중에 앨런을 만났다.

“오, 앨런. 드디어, 드디어 때가 왔어. 우리들이 우주선을 움직이는 거야.”

앨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래? 마침내 때가 되었군!”

“그렇다네. 지금부터 내비 선장에게로 가서 그의 허가를 받는 거야. 따라오게!”

두 사람은 선장실 앞에 닿았다. 호위병이 경례를 했다. 앨런이 그 호위병을 밀어 젓히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호위병은 앨런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비키지 못해! 무슨 짓이야?”

“무기를 나에게 건네 주시오. 무기를 가지고선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라고? 나를 몰라 보는 거야? 나는 앨런 마호니야!”

“알고 있습니다. 저 분은 빌 에르츠 기관장이고, 또 저 분은 휴 호일랜드 우주 항해사입니다. 당신들의 무기를 건네 주신다면 안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무슨 잡꼬대를 하는 거야! 어서 비키지 못해!”

호위병이 신호를 했다. 그러자 양쪽의 통로에서 몇 명의 호위병이 다가왔다.

“싸우자!”

앨런이 칼에 손을 대면서 말했다.

“잠깐!”

휴는 호위병을 향하여 말했다.

“어째서 우리의 무기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지!”

“미안합니다. 호일랜드 씨. 어쨌든 무기를 가진채로 선장실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새 규칙이 생겼습니다.”

휴는 모두를 돌아보았다.

“그가 말하는 대로다. 우리들은 이제 무기를 버릴 때다. 그의 말대로 하자.”

휴는 칼집에서 칼을 빼어 호위병에게 건네 주었다. 빌 에르츠는 그것을 보고는 어깨를 움츠렸지만 곧 자신의 칼을 건네 주었다. 앨런은 매우 오랫동안 망설인 뒤에 화가 치미는 듯, 입술을 삐죽거리며 칼을 건네 주었다.

호위병은 세 사람을 선실로 보내 주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조-짐과 보브가 있었다. 내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다. 조-짐, 이것이 선장으로서의 내 결정이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오, 자네들이군. 자네의 뮤탄트 친구들이 선장인 내 결정에 반대하고 있네.”

“어떻게 된 거예요, 조-짐?”

조-짐은 손가락으로 내비를 가리켰다.

“저 놈은 뮤탄트 전원으로부터 무기를 거두어들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들은 무기를 버려야 합니다. 싸움이 끝났으면 그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는 거야. 뮤탄트에게서는 무기를 거둬들이고, 승무원들에게는 그대로 갖게 한다는 거야. 이것은 불공평해. 아니, 그보다 무슨 음모의 냄새가 나. 조금이라도 우리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승무원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뮤탄트를 모두 죽이고 말 거야.”

“승무원들도 언젠가는 무기를 버릴 거야. 그러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해. 이것이 우리들이 정한 새로운 규칙이야. 반대는 용서할 수 없어.”

내비는 그렇게 말해 버리고 휴 쪽을 향했다.

“그런데 자네들은 나란히 무슨 일인가?”

“마침내 뱅거드 호의 주엔진에 점화할 때가 왔습니다. 선장님. 준비는 모두 갖추어 놓았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지금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내비는 잠시 놀란 듯했으나 당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유감스럽지만 그것을 조금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 휴. 난 아직 장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장교들의 도움은 필요없습니다. 빌 에르츠와 나, 그리고 조수들만으로 조작은 가능합니다. 아니, 그 것보다도 우물쭈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곧 주엔진을 점화시켜 우주선의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목표의 별을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비의 얼굴은 아주 무표정했다.

“아니, 좀 더 기다려야 해.”

휴는 참지 못하고 소리질렀다.

“모르시겠습니까, 선장님? 이 기회를 놓친다면 켄타우리에는 영원히 도착하지 못하고 마는 겁니다!”

“나는 조금도 상관없어.”

에르츠가 외쳤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선장! 머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이 허락하지 않겠다면 우리들끼리만 시작하겠습니다.”

내비는 갑자기 책상 위를 짱 쳤다.

“나는 이 우주선 선장이야. 선장의 명령을 무시하는 미치광이 같은 생각하는 작자들은 용서하지 않겠어!”

“미치광이라고? 그럼?”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내비의 얼굴에 경멸에 찬 얽은 웃음이 떠올랐다.

“휴, 이 유일 절대의 배가 움직인다는 것 따위를 믿고 있는 자는 정신이 돈 거야. 만일, 배의 평화를 흐트러뜨리려 한다면, 그건 반역이야!”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우주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 배는 우주선이고, 또 켄타우리 별을 향하여 날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휴가 어이가 없어서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선장? 당신은 우리들을 놀리는 겁니까?”

빌 에르츠가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비는 에르츠를 경멸스런 눈으로 쳐다보았다.

“빌 에르츠, 나는 자네가 휴 호일랜드의 미치광이 생각을 그저 믿고 있을 뿐이려니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 그것에 아주 폭 빠져 버렸군. 그러고도 과학자로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하지만 당신은 조종실에서 본 그 광경을 어떻게 설명할 생각입니까?”

“그 따위로 내가 속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빌 에르츠!”

내비는 비웃었다.

“그건 속임수야. 스위치 하나로 천장에 이상한 광경이 나타나게 하는 속임수란 말이야. 물론 제법 잘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아주 훌륭한 예술 작품이지. 고대인들은 그것으로 미신을 믿는 승무원들을 놀라게 해서 신화를 믿게 하는 데에 사용했을 거야. 그러나 우리들을 속일 수는 없어. 나는 그것을 파괴해서 빛의 점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 줄테다.”

휴는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빌 에르츠가 눈짓을 했기 때문에 겨우 참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칼집을 쥐고 언제라도 도망칠 태세를 취하고 있는 내비에게 덤벼들었을 것이다.

빌 에르츠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당신이 말한 대로인지, 아니면 우리들이 옳은지 시험해 봅시다. 우리들이 이 우주선을 움직이게 되며 우리들이 옳은 것이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신이 옳은 것이 될 거요.”

“입 닥쳐! 배가 움직일 리가 없다고 선장인 내가 말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자, 이제 그런 시시한 이야기는 그만두고 나가 주게.”

“역시 그렇군.”

그 때까지 잠자코 있던 조-짐이 큰소리로 외쳤다. 모두 조-짐을 돌아보았다. 2개의 머리를 가지 뮤탄트는 성난 마왕처럼 무서운 얼굴로 내비를 노려보고 있었다.

“놈은 우리들 모두를 배반했어!”

“배반했다고?”

내비가 코를 킁킁거렸다.

“그렇다. 너는 젊은 과학자들에게 우주를 보여 주겠다고 휴와 약속했다. 또, 에르츠에게도 이 배를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에게는 함께 싸운다면 나를 너와 평등하게 대접하고, 영원히 좋은 식사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을 너는 배반했다. 넌 우리들에게서 총을 빼앗았고, 휴들로부터는 희망을 빼앗아 버린 거야!”

최후의 순간.

내비의 얼굴이 갑자기 빨갱게 되었는데 했더니 점점 파랗게 되어 갔다. 그는 입가에 얇은 웃음을 띠며 말했다.

“그대로다, 조-짐.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었어. 그 목적도 이미 달성되었다. 너희들을 이 자리에서 죽게 해 주지!”

“이 놈!”

빌 에르츠가 외쳤다.

그 순간 호위병들이 칼을 치켜 들고 방안으로 달려들어왔다. 어떻게 손 쓸 틈도 없이 5명은 한 군데로 몰리게 되었고, 곧 수십 자루의 칼이 그들을 빙 둘러싸고 말았다.

“내 부하들이 잠자코 보고만 있지 않을걸, 내비!”

짐이 이를 가며 외쳤다.

“멍청한 놈. 지금쯤은 벌써 네 부하 뮤탄트들은 모두 무기를 빼앗겨 버렸을 거야. 저항하는 놈은 가차없이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모두 죽었을지도 몰라.”

내비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자, 이 놈들을 에너지 전환로로 데리고 가!”

보브가 짐승처럼 신음하며 조-짐을 노려보았다. 조가 살짝 눈짓한 뒤 ‘이놈, 보브!’ 하고 조그맣게 외쳤다.

보브는 자신의 가슴과 등에 들이대고 있는 칼 따위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았다. 보브는 갑자기 조의 등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병사에게 달려들었다.

너무나 뜻밖의 행동에 병사들은 깜짝 놀랐다. 이 틈을 조-짐은 놓치지 않았다. 조-짐은 앞에 있는 병사의 배를 걷어차고 쓰러진 놈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옆의 병사를 찔렀다.

대격투가 시작되었다.

휴는 칼을 쥐 병사의 손목을 거머잡고 뒤엎었다. 에르츠와 앨런도 4~5명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갑자기 휴의 상대가 ‘옥’ 하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조-짐이 도와 준 것이다. 휴는 상대에게서 칼을 빼앗아 에르츠와 싸우고 있는 병사와, 앨런을 뒤에서 덮치려고 하는 병사를 처치해 버렸다.

순식간에 승부가 결정되었다. 뒤에 있던 호위병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는 듯이 도망쳐 버리고 말았다. 휴와 앨런, 에르츠는 손발과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대단한 상처는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보브는 무참했다. 뒤쪽 어깨와 옆구리에 하나씩 칼이 꽂혀 있었다. 이미 숨소리도 거칠어지고 있었다.

조-짐이 보브를 안아 일으켰다.

“어서 여기를 떠나자. 내비는 어디에 있지?”

그러나 내비는 보이지 않았다. 이 소란통에 어디로 도망친 것이 틀림없다. 곧 응원병을 이끌고 돌아오겠지.

통로로 나가자 사무관과 여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있었지만 병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가지?”

“위로! 착륙선으로 가는 거야!”

빌 에르츠가 외쳤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주엔진을 조작할 수 없어요. 먼저 속도를 줄여야 해요.”

휴가 그렇게 말했지만 빌 에르츠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우주선 전체가 우리의 적이야. 아무리 해도 주조종실이나 엔진부로 들어갈 수 없어. 착륙선으로 가서 본선 에너지 전환로로부터 착륙선 전환로로 동력을 옮기는 거야. 자, 지금 당장 출발이다!”

휴가 말했다.

“안 돼요. 도중에서 될 수 있으면 동료들을 모아가야 해요. 우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데까지 태워서 가요. 우리들은 저 행성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해요. 남자만으로는 안돼요. 여자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좋아, 가자!”

모두 일제히 달리기 시작했다.

도중에 얼굴을 아는 젊은 과학자들과 만났다.

“자네들, 우리들과 함께 신세계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가? 있다면 데리고 갈 테니까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게!”

휴가 외쳤다. 대부분의 사람은 멍청이 서서 망설였지만 그 중에서 한두 명이 두를 쫓아왔다. 다음에는 젊은 처녀들을 만났다. 그 중에는 앨런과 휴하고 몇 번 만난 처녀도 있었다.

앨런이 자기가 아는 처녀 앞을 가로막고 섰다.

“나를 좋아해요?”

처녀는 깜짝 놀랐으나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앨런은 덤석 처녀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갑시다.”

라고 말하며 뛰기 시작했다.

휴는 앨런만큼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데리고 가고 싶었다. 그는 그 처녀가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우리들은 이 낡은 나라를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러 가는 겁니다. 새로운 생활을 하고 싶으면 우리들과 가는 게 어때요?”

“기다려요. 그렇게 급하게 말하시면...”

처녀는 망설였다.

“아니, 기다릴 틈이 없어요. 지금 곧 결정해야 합니다. 결심이 서면 뒤쳐지지 않게 우리 뒤를 따라 오세요.”

착륙선이 있는 중앙 축으로 갈 때까지는 적을 한 명도 만나지 않았다. 휴 일행은 열 명 정도로 늘어났다. 젊은 여자도 너댓 명

섞여서,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도 한편으로는 화사한 기분마저 들었다.

중앙 축에 도착했을 때 조-짐이 갑자기 멈췄다.

“보브가 죽었다.”

짐이 울먹이며 말했다.

보브의 몸은 축 늘어진 채 눈을 뜨고 있었지만, 이미 아무 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조-짐은 보브의 몸을 살짝 통로에 내려놓고 몸에 꽂혀 있는 두 자루의 칼을 빼들었다. 칼을 뺀 곳에서 천천히 피가 흘러나왔다.

조-짐은 보브의 눈을 쓸어 내렸다.

“용감한 보브 잘 자게. 보브 원수는 갇아 줄게!”

그 때 잠깐 어딘가에 갇었던 빌 에르츠가 흐느적 거리는 발걸음으로 되돌아왔다. 그의 뒤에도 두세 명의 남녀가 따라왔다.

에르츠는 조-짐을 보자 어디에서 손에 넣었는지 긴 칼 한자루를 건네 주었다. 그리고 자기도 두 손에 한 자루씩 들고 있었다.

“도중에서 룡암과 포티 원을 만났소. 하지만 둘다 죽었어요. 당신의 부하들은 아무데도 없었소.”

“내비가 모두 에너지 전환로에 처넣어 버린 거겠지.”

조가 아주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좌우지간 빨리 착륙선으로 갑시다.”

일행은 처녀들을 가운데 세우고 앞으로 나아갔다. 무중력 상태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젊은이들과 처녀들은 손발을 마음대로 놀릴 수 없어서 당황했지만, 휴 일행이 손을 잡아 주기도 하고 뒤를 밀기도 해서 겨우 마지막 통로에까지 도달했다.

그 때, 갑자기 적이 공격해 왔다.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칼이 몇 자루 바람을 가르며 날아왔다. 젊은이 한 명과 처녀 한명이 몸 어딘가에 칼을 맞고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다.

“빨리 착륙선에 타서 전환로에 에너지를 넣어야 해!”

빌 에르츠가 먼저 안으로 뛰어들고, 앨런과 휴는 당황해 하는 동료들을 착륙선 에어 록 안으로 차례차례 밀어 넣었다. 조-짐이 혼자서 적과 싸웠다. 그는 한 자로 한 자로 정확하게 칼을 던져서 통로에는 서너 명의 적의 시체가 공중에 떠다녔다.

그러나 적은 수가 많았다. 두 번째의 칼이 날아왔을 때 짐은 가까스로 목숨을 지탱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는 가슴팍에까지 날아온 칼을 큰 칼로 간신히 떨어뜨렸다.

“아이쿠 맙소사. 큰 일날뻔했군.”

짐은 고개를 돌려 조의 얼굴을 보면서 말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조의 왼쪽 눈이 칼에 깊숙이 찔려 있었다. 조는 즉사한 것이다.

그 때, 휴가 착륙선 에어 록에서 외쳤다.

“어서 타요, 조-짐! 모두 탔어요!”

“문을 닫아, 휴.”

“안 돼요.”

“달아, 휴! 나는 여기에 남겠어.”

휴는 그 때 처음으로 조가 죽은 것을 알아차렸다. 짐은 긴 칼을 쥐고 바위덩이처럼 서서 사방에서 달려드는 적을 물리쳤다.

‘짐이 우리를 위해 죽을 생각인 모양이구나.’

휴는 에어 록에서 뛰어 내렸다.

“나도 남겠어요. 짐, 함께 싸워요.”

“안 돼.”

짐은 무섭게 휴의 얼굴을 쏘아보았다.

“너는 착륙선의 조종사야. 네가 없으면 아무도 착륙선을 조종할 수 없어. 어서 가, 휴! 어서 네 임무를 완수해.”

휴는 그래도 듣지 않았다. 그러자 짐이 휴의 가슴을 밀어 에어 록 속으로 집어넣고 바깥에서 꽁 닫아버렸다.

짐은 돌아서서 적에게 향했다. 그 때, 칼이 날아와서 가슴에 한 자루, 양 다리에 한 자루씩 꽂혔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긴 칼은 한 명을 두 동강이 내고, 또 한 명의 팔을 잘라서 떨어뜨렸다. 무중력 상태에서의 싸움은 이상했다. 잘려진 팔과 시체가 공중에 빙글빙글 떠다녔다. 적의 칼이 날아와서 짐의 가슴과 목에 꽂혔다. 그러나 그의 긴 칼은 마지막까지 적을 쓰러뜨렸다.

조-짐이 마침내 쓰러졌고, 적은 착륙선의 에어 록에 매달렸지만 에어 록은 굳게 닫힌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벽의 안쪽에서 에너지 전환로 특유의 그 낮고 웅웅거리는 듯한 소리와 가느다란 진동이 전해져 왔다.

휴의 결심.

휴는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않는 에어 록의 안쪽에서 몸부림쳤다. 조-짐이 자신들을 위해 희생한 것이었다.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끊임없이 눈시울을 적셨다.

빌 에르츠가 급히 달려와서 휴를 쳐다보고 깜짝 놀라 멈춰 서버렸다.

“조-짐은?”

“그는 밖에 남았어요. 우리들끼리만 출발하라고 말했어요.”

빌 에르츠도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나서 똑바로 머리를 들고 휴를 쳐다보았다. 휴도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그는 선장 자리에 앉아서 조명을 켰다. 시커먼 어둠 속에서 그는 녹색의 빛 위에 손을 얹었다. 스크린에 ‘엔진 준비 좋음’이라는 글자가 반짝였다.

기관사 자리에 앉아 있던 빌 에르츠가 고개를 끄덕였다. 휴는 뒷자리의 앨런을 돌아보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을 가속 의자에 앉혀 주게. 곧 발진할 테니까.”

“책임지고 하겠어.”

잠시 뒤, 앨런이 좋다는 신호를 보냈다. 휴는 발사 광점 위에 손을 얹었다. 곧 이어 가슴이 울컥하는 것 같은 감각이 느껴졌다. 머리도 빙글빙글 돌았다.

착륙선이 뱅거드 호를 떠나서 날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 앞에 있던 새카만 스크린 같은 것에 별빛의 무리가 갑자기 나타났다. 역시 그것은 전망용 창이었다.

별들은 회전하며 저 항성 - 휴가 켄타우리라고 믿고 있는 태양이 창 정면에 나타났다. 그리고 천천히 반대쪽으로 사라져갔다.

착륙선이 뱅거드 호의 코스에서 이탈해 켄타우리로 향하여 궤도를 수정한 것이다.

“앗! 저게 뭐지?”

빌 에르츠가 창을 가리키며 외쳤다.

창 한쪽 구석에 뭔가 거대한 테 같은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태양의 빛을 흠뻑 받고 있는 쪽은 반짝반짝 빛났고, 다른 쪽은 새카맣다. 그 땅딸막하고 보기 흉한 모습은 얼핏 무서운 괴물처럼 보이기조차 했다. 휴도 한순간 몸이 오싹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렸다.

“저것이 ‘배’ 입니다. 에르츠.”

“‘배’ 라고?”

“그래요. 저것이 뱅거드 호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거기에서 빠져 나온 것입니다.”

빌 에르츠와 휴는 한참 동안 묵묵히 뱅거드 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저것은 어디로 가는 걸까?”

빌 에르츠가 공포에 짓눌린 듯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켄타우리의 옆을 지나서 끝없는 우주를 언제까지고 날아가겠지요. 그리고는 그 동안 우리들이 그러했듯이 아무 것도 알지 못한 채 목적도 없이 앞으로 또 몇백 년, 몇천 년, 아니 영원히…”

휴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모른채 끝없는 우주를 여행할 사람들에게 그는 깊고 깊은 동정을 느꼈다. 저 밋디미운 내비마저 지금에 와서는 불쌍해졌다.

휴는 뒤를 돌아보며 앨런을 불렀다.

“자, 모두 이곳으로 불러 주게, 앨런. 모두에게 별을 보여 주어야겠어.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해 주자.”

앨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떻게 하지? 남자들은 이해하겠지만 여자들에게는 아직 보여 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분명히 무섭다고 발작을 일으킬 텐데.”

그러나 그것은 앨런의 착각이었다.

착륙선에 탄 젊음이는 3명, 처녀는 5명이었다. 그들에게 우주의 별을 보여 주자, 처음에는 모두 충격을 받았다. 처녀들 중에는 정신을 잃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뿐이었다. 마침내 모두 놀랄 만큼 빨리 지구와 별에 대하여 이해했다.

그것은 사실은 진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익숙해진 것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들이 온 세계 그 자체였다고 믿어

왔던 ‘배’의 밖으로 나온 것, 그 ‘배’도 대우주 가운데서는 지극히 보잘 것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대우주에는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이 가득차 있고, 그 옆에는 ‘배’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불타는 태양이 있다는 것. 이렇듯,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차례로 보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다.

“그런데 휴. 우리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휴의 여자 친구 - 크로가 죽은 듯이 고요한 침묵을 깨뜨리며 불쑥 말했다.

“이 태양계에는 행성이라고 하는 태양의 자식 같은 별이 있어요. 태양은 저렇게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나 생물이 살 수 없지만, 행성은 뜨겁지 않고 단단한 곳이지요. 그 중에는 물론 공기도 있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행성도 있다고 해요. 우리들은 그런 행성을 찾아서 착륙하여, 거기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곳은 이 착륙선보다도 넓겠지요?”

다른 한 처녀가 천진스러운 얼굴로 염려스러운 듯이 찡그리며 말했다.

휴는 미소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요. ‘배’보다 훨씬 넓은 곳입니다.”

“정말이에요? 그거 거짓말 아니죠?”

처녀들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얼굴로 제각기 말했다. 무리

도 아니었다. 모두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 이외의 세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말이고 말고요! ‘배’ 보다 3배 4배나 넓은 곳이지요. 그 곳에는 물이 졸졸 흐르는 강이라는 것도 있고, ‘배’ 의 높은 층보다도 훨씬 높은 산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앨런이 휴에게 들은 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젊은 과학자 한 명이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마호니 씨도 아직 본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앨런은 말이 막혔지만, 곧 가슴을 펴고 말했다.

“휴가 이야기 해 주었어요. 휴는 우리들과 달라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휴는 학자이기 때문에 뭐든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휴가 말하는 것에 따라야 합니다.”

모두 휴 쪽을 향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믿겠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휴도 ‘내게 맡겨 뒤’ 하고 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리려 보였다. 그러나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이 가시지는 않았다.

휴는 정말 인간이 살 수 있는 행성을 발견할 수 있을지, 아니 다행히 그런 행성을 발견한다 해도 제대로 착륙할 수 있을 지 도무지 자신이 없었다.

아니, 걱정은 또 있었다.

그 소동 때문에 착륙선에 양식을 제대로 실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에너지와 공기와 물은 꽤 많이 실었다. 때문에 질식해 죽는

일은 없겠지. 그러나 행성을 발견하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그 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면 양식이 떨어져서 모두 행성에 도착하기 전에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휴는 이런 걱정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 있는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다. 그리고 마음 속 깊이 ‘어떻게 해서든지 모두 무사히 행성으로 데리고 가야지.’ 하고 결심했다.

멋진 식사를!

아무리 굳은 결심도, 또 아무리 정성을 다한 노력도 운이 따라 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휴 호일랜드에게는 지금 멋진 행운이 따르고 있었다.

그 행운의 첫번째, 휴 일행을 태운 착륙선이 놀랄만큼 잘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행운은, 휴 일행이 아주 적당한 때, 적당한 위치, 적당한 각도로 모션 뱅거드 호에서 탈출했다는 것이다.

만약,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착륙선을 발사했다면 너무 거리가 멀어져서 착륙선의 엔진으로는 무리였을 것이다. 또, 조금이라도 더 늦어졌다면 항성의 중력에 이끌려 모션의 속력이 너무 빨라졌서 발사되는 순간 심한 충격으로 모두 죽어 버렸을지도 모른다.

또, 혹시 착륙선이 발사된 각도가 이 태양계 행성의 궤도와 거의 같은 각도가 되지 않았다면 착륙선은 영원히 행성에 닿을 수 없는 방향으로 날아가 버렸을 것이다.

이러한 행운 덕택에 휴 일행의 착륙선은 얼마 뒤에 어느 행성에 접근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다. 휴는 여러 번 외워두었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해서 제동을 걸어, 착륙선을 그 행성 주위를 도는 궤도에 올려 놓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거대한 행성은 지독한 유독 가스

대기를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중력은 지구의 두 배 이상이었다. 즉, 목성과 같은 모양의 거대한 행성이었던 것이다. 혹시 아무것도 모른채 그 행성에 착륙하자고 했다면 단번에 그 행성의 거대한 중력에 잡혀서 두 번 다시 탈출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에어 록을 여는 순간 유독 가스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모두 질식사 죽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착륙선의 멋진 관측 계기류와 컴퓨터가 휴를 도와주었다.

관측기가 이 큰 행성의 대기의 구성과 밀도를 조사해서, 곧 인간이 호흡하기에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또, 중력계가 중력을 재어서 그것 역시 지구인에게는 너무 무겁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다.

휴는 이 행성에 착륙하는 것을 중지했다.

‘그렇지만 곤란하게 되었어. 이제 에너지와 물, 식량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아. 아아. 간신히 여기까지 왔는데. 역시 우리들은 이 우주 공간에서 죽고 말 운명인가?’

그는 어두운 마음으로 외쳤다.

그러나 운명은 이미 휴를 이대로 버려 두지 않았다. 얼마 동안 날았을 때 착륙선의 건너편에 또 다른 별이 나타났다. 그 것은 이 행성의 위성 같았다.

휴는 곧 그 위성으로 가보자고 결심하고 행동했다. 그래서 그것이 세 번째의, 그리고 최대의 행운이었다. 왜냐 하면, 그 위성에는

지구인이 살아가는 데 아주 적당한 공기와 물이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중력도 지구의 중력과 거의 같았다. 휴는 우선 위성 주위를 도는 궤도에 착륙선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위성이 착륙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고는 드디어 착륙 자세를 취해서 발사 장치를 ‘작동’에 놓았다. 휴에게는 착륙선을 위성의 땅 위에 무사히 내려놓을 자신이 없었다.

어떻게 조작하면 좋을까 하는 대강의 지식은 그 동안 책을 통해서 알았지만, 그에게는 경험이 전혀 없었다. 만의 하나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면 우주선을 구할 수 있을까는 짐작도 되지 않았다. 우주선의 조작을 수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착륙선은 쏘살같이 대기권으로 돌입했다. 착륙선은 무서운 충격을 받았다. 휴와 빌 에르츠가 조종석에서 튕겨 나갔다. 다른 사람들도 쓰러져서 공중에 튀어 올랐다.

“사람 살려!”

“아, 답답해!”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다. 착륙선은 엄청난 진동을 받고 제멋대로 회전했다. 휴의 두려움이 적중한 것이었다. 착륙선은 엉뚱한 각도로 대기권에 돌입한 것이었다. 창밖에 새빨간색이 되고 지독한 불꽃이 창을 불태웠다. 너무 빠른 속력으로 돌입했기 때문에 대기와의 마찰로 선체가 타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젠 다 틀렸다! 우리들은 끝장이야!”

빌 에르츠가 고통스럽게 부르짖었다. 실제로 그 상태가 좀더 계속된다면 빌의 말대로 끝장이 날 것이다. 착륙선은 불덩이가 되어서 마침내 선체를 녹이고 휴 일행은 공중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하고 말 것이다.

이 행성에 주민이 있다면 멋있고 큰 밝은 유성이 휩 날아가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한번 착륙선의 놀라운 설계가 우주선과 인간의 목숨을 구했다.

설계자들은 착륙선을 조종하는 사람이 경험도 없는 비전문가 조종사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때문에 착륙선은 조종사의 힘 없이도 곧 자동 조종으로 착륙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 조종의 스위치를 넣어야 했다.

휴는 우주선 안이 뒤죽박죽이 되어 정신을 잃기 바로 직전에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일종의 본능적인 직감이었다. 그는 필사의 힘을 쏟아 그 장치에 손을 가져갔다.

그 순간 착륙선은 기적처럼 자세를 바로 잡았다. 자동 조종 장치가 훌륭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착륙선은 자세를 완전히 바로 잡아서 대기권 안을 글라이던처럼 활공하면서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마침내 숨을 돌리고 몸을 일으켜서 주위를 살펴볼 수 있었다. 빌 에르츠가 창밖을 보더니 갑자기 외치기 시작했다.

“휴! 별들이 모두 없어졌어! 저기를 봐. 저기에 맑고 푸른 하늘

이...”

휴도 물론 그것을 알고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이 일은 정말 모르겠는데!”

휴가 당황해서 말했다. 휴도 어떻게 된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사실은 착륙선이 대기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기의 난반사 때문에 별빛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하늘이 푸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도 물론 그 때문이었다.

“정말 멋진 색깔인데. 이런 아름다운 색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야!”

크로는 황홀한 듯이 조종석 앞의 창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도 착륙선은 계속 고도를 낮추어 갔다. 휴가 아무 조작도 하지 않았는데 착륙선은 적당한 코스를 따라서 기분 좋게 날아갔다. 아래의 세계가 이미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다.

질푸른 부분과 갈색 부분을 가르며 구불구불 흐르는 물빛. 그리고 커다랗게 경사진 지평선 주위에도 크고 넓은 물빛이 있었다.

‘녹색의 부분은 숲. 식물이 무성한 곳이다. 갈색의 부분은 띠이고, 물색 띠 같은 것은 강이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질푸른 부분이 바다라고 하는 거겠지.’

휴는 지금까지 읽은 지구에 대한 지식을 더듬어 가면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착륙선은 차츰 고도를 낮춰서 벌써 땅이나

숲 등의 형태를 완전히 알 수 있는 곳까지 내려왔다. 휴는 점차로 흥분해 갔다.

‘드디어 몇백 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꿈꾸던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이제 잠시 뒤에 우리들은 저곳에 착륙한다. 그리고 이 발로 대지를 힘껏 밟을 수가 있는 것이다.’

착륙선의 밑부분에서 착륙용 로켓 엔진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땅에서 뭉게뭉게 모래 연기가 올라와서 창 밖을 완전히 가려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착륙선이 완전 방음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소리가 선실 안까지 들려 왔다. 진동으로 몸이 부르르하고 조금씩 떨렸다.

휴의 이마에서 식은 땀이 배어나왔다. 빌 에르츠도 조각처럼 얼굴이 하얗게 되었다. 앨런과 다른 사람들의 얼굴도 굳어졌다. 그러다가 갑자기 엔진의 굉음이 똑 멈췄다. 진동이 멎고 갑자기 덜커덕 하는 짧은 충격이 있더니 곧 잠잠해졌다.

완전한 고요가 찾아왔다.

“어떻게 된 걸까, 휴?”

빌 에르츠가 흠짓 주위를 돌아보며 물었다. 휴는 전망창에 눈을 대었다. 모래 먼지가 조금씩 조금씩 개이고 앞이 밝아져 왔다.

진한 녹색 숲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거기에는 녹색 풀이 살랑살랑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드디어 도착했다!”

휴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다. 그는 얼른 일어서려고 했지만 도저히 꼼짝할 수 없었다. 지쳐버린 것이다. 지금까지의 심한 긴장 때문에 마음과 몸이 지칠 대로 지쳐서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었고, 아무 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드디어 휴는 기운을 되찾았다.

우선 관측 장치의 계기를 다시 쳐다보았다. 그 계기들은 전부 인간이 생활할 수 있다고 나타냈다.

“에르츠 기관장님. 에어 록을 여세요.”

에르츠가 에어 록의 장치를 열었다. 에어 록이 곧 끼끼깅 하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휴는 그 앞에 서서 에어 록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도착했나요, 호일랜드 씨?”

한 처녀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도착했습니다.”

휴는 그렇게 대답하며 열린 에어 록으로 들어가서 바깥쪽의 갑판 승강구를 손으로 열었다. 달콤하고 상쾌한 공기가 흘러들어왔다.

“아이 추워.”

하고 누군가가 말했다.

사실은 것처럼 춥지는 않았다. 지금까지의 우주선 안의 변함없고 움직임도 없는 공기 속에서 있다가 새로운 공기가 흘러들어오자 그런 느낌이 든 것 뿐이다.

“자, 나갑시다!”

휴는 그렇게 말하며 승강구의 밑을 살핀 뒤 1m 반 정도 아래의 땅으로 뛰어내렸다. 땅은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해서 기분이 좋았다. 눈 앞에는 넓은 초원이 멀리 지평선까지 계속되어 있었다. 하늘에는 큰 반달 모양의 행성이 걸려 있었다.

빌 에르츠가 옆으로 뛰어내렸다.

“아아!”

그는 크고 깊게 숨을 쉬었다.

“정말 크구나! 넓어! ‘배’ 따위는 문제도 되지 않는구나!”

“음!”

휴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책을 통하여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보니 그저 놀랍고, 어떤 감동 같은 것이 샘처럼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이봐! 우리도 내려가도 좋은가?”

앨런이 승강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아, 내려오게!”

휴는 말하며 풀숲을 몇 발자국 걸었다. 앨런이 뛰어내려왔다. 그는 땅에 내려서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한두 걸음 걷다가 갑자기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며,

“앗! 눈이 눈이 어지러워.”

라고 말하며 비틀거리다가 풀숲에 털썩 쓰러졌다. 휴와 에르츠는 그 곳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자신들도 현기증을 느꼈다.

그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넓고 넓은 곳에서 섰던 것이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벽도 기둥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곳에 선 것이다. 공포가 엄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휴와 에르츠는 아까부터 창 너머로 밖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앨런만큼 커다란 충격을 받지 않았다.

“앨런! 휴! 어떻게 된 거예요?”

승강구 쪽에서 처녀들이 두려움에 잔뜩 질린 얼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돌아와요! 빨리 돌아와요!”

잠시 뒤에 앨런이 눈을 떴다. 그리고 착륙선 쪽으로 엎드려서 엉금엉금 기어가려고 했다.

“일어서, 앨런!”

휴가 소리쳤다.

“겁내지 말고 일어나!”

휴의 고함 소리에 앨런이 흠짓하면서 몸을 일으켜 고개를 들고 휴를 쳐다보았다.

“잠시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러면 나아질 거야.”

앨런은 휴가 말하는 대로 일어나서 가만히 앉았다.

“자, 모두들 내려와요.”

“싫어요! 무서워요!”

처녀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뒷걸음질쳤다.

“두렵지 않아요. 우리들을 봐요. 아무 일도 없잖아. 어서 내려와요. 조금만 지나면 익숙해져요. 자, 내려와요.”

휴는 일부러 엄한 말투로 명령했다. 처녀들은 휴의 명령에 우물쭈물하면서도 앞쪽으로 나왔다. 크로가 맨 앞이었다. 휴는 크로의 손을 잡고 안아서 살짝 땅 위로 내려 주었다. 크로는 비틀거리며 그 자리에 웅크리고 주저앉고 말았다.

휴와 빌 에르츠는 내려오기 싫어하는 처녀들을 계속해서 반강제로 땅에 내려놓았다. 젊은 남자들은 직접 뛰어내렸지만 금방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휴는 모두를 그대로 있게 놔두었다.

꽤 시간이 지났는지 착륙했을 때 하늘 한가운데에 있었던 태양이 벌써 서쪽 지평선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나 모두들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땅에 딱달라붙은 채 한 걸음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이미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를텐데 아무도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바보처럼 앉아만 있었다.

그 중에는 아예 눈을 꼭 감고 있는 처녀도 있었다.

다만 크로만이 겨우 조금 움직였지만 휴가 있는 곳까지는 울음기가 없는 것 같았다.

‘큰일났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는군.’

휴는 난처해서 빌 에르츠를 쳐다보았다. 에르츠도 못마땅하여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하며 좀체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 웅크린 채 있는 앨런을 당장이라도 고함을 칠 것 같은 눈으로 쏘아보았다.

바로 그 때였다. 앨런으로부터 3~4m 떨어진 풀숲에서 무언가가 바스락거리며 움직였다. 다음 순간, 앨런은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칼을 던졌다.

앨런은 후다닥 그 곳으로 달려가서 움쪽달짝도 못하는 제법 살이 찐 토끼 같은 동물의 뒷다리를 쥐고 모두에게 보여 주었다. 땅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모두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다.

“야! 훌륭한 만찬거리가 되겠는걸!”

앨런이 큰소리를 지르며 웃기 시작했다. 모두 덩달아서 웃었다.

“그렇다. 모두 조금 더 먹을 것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밤은 신세계 도착한 축하 만찬회를 엽시다.”

휴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찬성이요!’ 하고 외쳤다.

지금까지의 힘없고 흐물흐물하던 태도는 어느 곳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모두들 어떤 계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사실 비겁자도 겁장자도 아니었다.

아니, 그것보다도 이 세계가 앞으로 그들의 고향이 되리라는 것을 - 먹을 것도 풍부하고 살기 좋고, 멋진 고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좋아, 갑시다. 모두 멋진 식사를!”

휴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소리를 모아 외쳤다.

“멋진 식사를!”

[完]